

성경적 세계관 으로 살펴본 사도신경 연구

구본식

A
b i b l i c a l
w o r l d v i e w
through
The Apostles'
Creed

TITLE

biblical worldview through The Apostles' Creed

By

KOO BON SHIK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ological Seminary
OF
Harvest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Contextual Studies

05 2025

헌정 (DEDICATION)

이 논문을 사랑하는 아내 이순득 님과 자녀들에게 드립니다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신 하베스트 대학교 이성상
총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문제 제기

필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침례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고 성장 했다. 그런데 교향 교회와는 다르게 예배 때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다. 선생님께 물으니,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그것을 사용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을 마치고 10년의 직장생활 끝에, “이제부터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되려면 목사가 될 것이고 선교사가 되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곳이 총신대학교 신학 대학원이었다. 침례교도가 장로 교인이 된 것이다.

당장에 두 가지가 당황스러웠다.

하나는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외운다는 것이고-그때는 고백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외운다는 생각이 강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었다. 특히 유아세례 문제는, 신학교 재학 중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 리포트를 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사도신경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아무 생각 없이 빠른 속도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하지? 거기다가 문장 자체가 매끄럽지 않은 고어(古語)체로 되어 있어서 빠르게 발음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전체 신앙을 요약한 것이며,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한 교회로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신학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난 후였다

따라서 혹시라도 나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 혹은, 사도신경의 깊은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단순히 순하게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신경에 담긴 신학적인 깊이와 신앙적

인 이유를 알고 예배할 때마다 함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기를 마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사도신경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사도신경>이다. 세계관에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앤디 제자리리의 성경적 세계관》과 존 맥아더의 《성경론적 관점으로 본 세계관》등 훌륭한 연구 저작물들이 나와 있으므로 그들의 연구를 참조하고, 합동신학대학원의 정점식 교수가 쓴 “《세계관을 분별하라》, 《세계관과 영적 전쟁》, 그리고 본인의 성경적 세계관 연구의 전작들인 《통으로 읽는 복음》과 《비전 콘서트》,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사도 신경》등을 참조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사도신경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논문이나 책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심정으로 사도신경에 관한 옛 연구자료와 성경만을 참조하기로 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조를 만들 때, 오직 성경만 의지했듯이 이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의 목적과 논지

이 연구는 먼저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후에 하베스트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철학박사(Ph.D) 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목적으로 약간의 수정과 편집을 거쳤다.

우리 시대의 학문적 연구를 후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연구되고 저술되었다. 출판되지 않는 연구는 당대가 지나면 곧 잊혀지기 때문에, 적어도 학자라면 자신의 공부와 연구 결과를 저술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부족한 글을 썼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의 총합(叢合)이며 최종 요약이다. 여기에는 복음이 함축되어 있고,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보인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문제 제기

선행 연구와 연구 목적

연구 목적과 논지

서론

사도신경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

사도신경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을까?

제1장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전능하신 창조자 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언하실 뿐 증명하지 않는다

제2장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개념으로서의 善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3장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제4장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예수

제5장 고난을 받으신 예수

전설이 아닌 역사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6장 부활하신 예수

제7장 하늘로 오르신 예수

예수는 왜 승천하셨는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유

제8장 다시오실 심판자 예수

미륵불과 열 두번째 이맘 알마흐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심판의 기준

제9장 성령의 임재와 역사

제10장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聖徒

결론

서론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왜 만들어졌을까?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함께 낭송하지 않는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 교회들은 모두 사도신경을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신앙고백으로 인정하고, 공적인 예배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긴다.

사도들이 직접 이끌던 초대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 따로 없었다. 아니 사도신경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인 속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AD2세기 무렵부터, 영지주의 및 몬타누스주의 등 이단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가르침과 견해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따라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신민(臣民)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로부터 세계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교회마다 약간씩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는 이때까지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며, 특별히 성령을 빙자한 영적인 체험과 종말론적 거짓 계시 운동으로 나가게 된 몬타누스 운동 등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는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타나시우스를 따르는 이들이 심각하게 대립했다.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는

'성부'에 의해 시간 이전에 창조된 존재(피조물)라는 주장을 폈으며,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함께 영속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아타나시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는 동질(同質)이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일체론을 주장했다. 이 둘의 가르침은 교회에 심각한 논쟁을 불러왔으며, 자칫 서로 다른 종교로 분열될 위기로 진행될 수 있었다.

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리하기 위해 AD325년에 황제의 니케아 별궁(지금의 튀르키예의 이즈니크)에서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1차 니케아 공회의이다.¹

공회에서 두 파벌은 첨예하게 논쟁했는데, 공회는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물리치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정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때부터 교회는 일치된 신앙 고백서의 필요가 대두되어,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신조를 만들고, 이 신조에 동의하지 않는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파문했다.

그 후에 이 사도신조를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선서하지 못하면 곧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공적 예배 시에 함께 이 고백서를 암송하게 되었고,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효과적인 신앙 검증 도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자체라는 뜻이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주어진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물론 성도들은 항상 예배한다. 아니,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 있으면, 다시 말하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그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한다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공 예배, 혹은 공적인 예배라고 한다.

¹ Elgin S. Moyer (1951).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인물 중심의 교회사]. 번역 곽안전; 심재원. Moody Publishers. 120쪽.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앙이 다른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없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성전들을 성도라고 부르며, 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함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공동의 신앙고백이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믿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었지만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분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전들이 연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 분명히 그러한 차이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정치 결사체나 사회 모임에서도 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목적 등을 분명히 하는데, 하물며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공적인 예배에서 같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사도신경은 예배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순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사도신경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 있을까?

나는 다 같이 눈을 감고 빠른 속도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고, 지금도 불편하다. 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암송하고 지나가지? 왜 누구도 사도신경

을 해설하지는 않을까?

지난겨울 울산광역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다. 이 교회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사도 신경을 읽어 나갔는데, 따라 읽으며 울컥 눈물이 났다. 신앙고백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리 또박또박 진지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포함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사도신경은 크게 다섯 가지의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 이어서 성자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그분의 존재와 사역과 역사성을 고백하고, 성령의 존재에 대한 고백과 거룩한 공교회의 존재에 대한 동의, 그리고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고백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며 기독교 신앙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조금 더 세분(細分)하면 성부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개념은 이방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다. 믿어지는가?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산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신자들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성자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며, 이어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공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그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영이 임재하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몸의 부활에 관한 고백이다.

사람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부활하며,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모두 부활한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둘째 사망인 불 못에 참여한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신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산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제1장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은 본래부터 존재했었거나 우연히, 혹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신들의 합작품이거나,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다.

이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창조된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부여한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휴대 전화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전화기는 스스로 생겨났거나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것이다. 왜 만들었을까? 만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만드인이 부여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존재목적(存在目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화기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는 없다.

전화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계산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화기의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받거나 SNS를 통해 사진이나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것이 휴대전화기의 존재 목적이다. 만약에 카메라 기능은 멀쩡하지만, 전화나 문자,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면 누구도 그 전화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전화기 스스로 자신을 카메라로 인식하거나, 혹은 단지 장식품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고장이 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 고백을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가 걸린 무거운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과 땅,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하늘은 저 광활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은 가리키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어디일까? 우주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광대해서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이 우주를 포함해서 또 다른 또 다른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비롯해서 수 없이 많은 은하계가 존재한다.²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우리은하를 벗어난 또 다른 우주인가? 땅은 이 지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러면 지옥은 어디일까? 지구의 지하 어딘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일까?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1:16 절이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표준새번역)

여기서 우리는 우주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을 얻을 수 있다. 우선은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우주와 보이는 우주,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늘과 땅,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와, 눈에 보이는 우주는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하늘을 지칭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우주는 땅을 지칭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어디인가? 그곳은 대기권은 벗어난, 저 먼 하늘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이다.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져지거나 감각되지도 않는다. 그 우주는 어떤 세계일까? 이 우주는 천사들과 귀신들이 존재하는 곳,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주이다.

이 영적인 우주 역시 본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타락한 영들 중에

² “Milky Way a Swifter Spinner, More Massive, New Measurements Show”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존재들은 자신을 神으로 자칭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그분과 경쟁할 수도 있다고 끝없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동시에 하나님의 고유영역인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일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로채려는 터무니 없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上帝(상제)라고 번역했다. 하나님을 번역할 다른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도교에서, 상제는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그러니 상제라는 개념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유교나 도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 나는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중국의 황제와 같은 면류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 신하들의 조회(朝會)를 받는 모습으로 그리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 이거나 가장 힘 있는 신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신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룩한 분이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시는 홀로 한 분이다. 다시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비어있는 우주공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하늘은 어디인가? 영적인 세상이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영적인 세상에 계신다. 그러나 그 영적인 세상에서 다른 영적인 존재들과 구별되신다. 이 구별된다는 개념이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우주에 영(靈)들과 함께 존재하시지만, 그 영들 즉, 천사들과 구별된다.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만드셨다.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세상에만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여기에도 존재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물질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제약 받지 않으신다.

읍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회의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신들인가? 성경에는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인 문학적 표현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3 말씀이다. 이 본문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가? 그 신적 능력을 지녔다고 인식되는 천사장들이다.

거룩이 무엇인가? 가장 큰 의미는 다르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존재하게 된 방법이 다르다. 다른 영적 존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심지어 천사장들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시작된 지점이 있다는 말이고, 시작된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시작된 시점이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시작된 원인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다른 존재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는, 그분은 존재하게 된 방식이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모든 존재 하게 된 것들, 즉 창조된 것들은 모두 존재 목적이 있고, 그 존재 목적은 창조하신 분이 부여하신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모든 영적 피조물과 모든 물질적 피조물(物質的 被造物)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것을 그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神)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감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 하나님처럼 창조되지 않았다거나,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에 존재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두 우주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로 지칭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며, 우주의 질서와 관리를 위해 영적인 우주의 천사장들에게, 그리고 물질 우주에서는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지위이다.

그러나 인간이나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 특별히 원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시도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저지른 반역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이유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반역 때문이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정도로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내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사는 목적을 스스로 정하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神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지 종교인일 뿐, 진정한 창조론자는 아니다.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불교나 도교, 유교, 힌두교 어느 종교 경전을 살펴봐도 자신이 세상을 창조했노라고 선언하는 신은 없다. 물론 추종자들에 의해 창조신으로 인정되는 존재들은 있다. 힌두교도들은 힌두의 삼신(三神) 중 하나인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중국 설화에 따르면 반고(盤古)라는

반신반인(半神半人)이 세상을 조성했노라고 전해진다. 일본 설화에서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미우르고스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불교나 도교에서는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가(儒家) 역시 이 세상은 음과 양의 절묘한 조화로 생겨났을 뿐,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한다. 반고가 되었던, 데미우르고스가 되었던,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되었던지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으로 세상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심지어는 공간도, 물질도, 빛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만드셨으며 그 공간과 대비되는 물질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즉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사는 우주인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는 선한 신들과 악한 신들이, 메루산으로 알려진 큰 기둥에 거대한 뱀을 감아 양쪽에서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우유 바다를 휘저어 거품을 만드는 거대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기둥 위에는 시바라는 신이 앉아 있는데, 이 신은 힌두 신화에서 파괴와 재창조의 신으로 알려진 존재이다. 이 조형물은 캄보디아의 앙코르톰에도 해자를 건너는 다리 난간에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다. 힌두 신화에 따르면 시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우유 바다를 휘저어 거품을 일으키고, 이 거품에서 데바라고 하는 인간들과 생명체들, 그리고 무생물체들은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는 조물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창조주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휘저었다는 우유 바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주와 조물주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창조주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기본적인 공간과 물질과 심지어 빛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만들고 나머지 것들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만드신 분이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반고(盤古)나 데미우르고스 같은 조물주(造物主)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이며,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신화나 전설로

전해질 뿐이다. 오죽하면 힌두교 경전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리그베다>에서조차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³고 했을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능력이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우리의 고백에는 엄청난 신학적 깊이가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신들, 즉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이나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들을 자신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부분 부분들을 완성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선하다**b/f**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이다.

성경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에 합당하면, 다시 말하면 존재 목적에 합당하면 선(善)이고, 존재 목적 즉,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악이다.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하는 분은 당연히기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존재의 목적을 정할 수 없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존재의 목적을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善惡果)”란 정확하게 선(善)과 악(惡)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나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나,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나 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³ 리그베다X129.67

인간에게는 물질 우주를 관리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 안에 들어와 계셨고, 만물은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인간은 물질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 영광을 통해 만물을 관리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지위를 벗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게 되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하게 되었다.

온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하신다. 그러나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자신이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정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는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이라는 선언이다. 나도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은 정확하게 叛逆(반역)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게 인간의 타락이고 원죄(原罪)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 신이 아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 역시 한 분이신 신(神)이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 자신을 신(神)이라고 속이는 영적인 존재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라,

타락한 영(靈)들일 뿐이다.

자신을 신이라고 속이는 존재들이 많은가 하면, 물질 우주의 관리를 맡았던 인간 역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행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죄가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다.

유튜브나 SNS에서 인기 있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義),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 등의 글이나 가르침에 반응이 없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는 관심이 폭발한다.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에 열광하고,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다 쓰고 죽으라는 행복론을 가르친다는 천주교 신부의 강의에는 열광한다.

왜 그럴까? 모두가 자신이 사는 이유를 행복에서 찾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행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버리면,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 자신의 존재 이유를 행복이라고 스스로 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사는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 존재 목적을 바르게 회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존재 목적을 바르게 회복한 사람들을 창조론자라고 부른다.

선언하실 뿐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었다. 그중의 하나가 창조에 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었을 것

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고, 영적인 우주와 물질 우주를 내가 창조했노라고 단지 선언 하셨다.⁴.

논리적으로 증명하셨으면 친구들을 전도하기에 좀 더 쉬웠을 텐데... 친구들이 야! 그거 종교적인 선언에 불과 한 것 아니냐, 혹은 또 성경 이야기하네? 너는 그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믿냐? 라고 말하면 정말 속이 상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막무가내로 선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욥기를 공부하면서 풀렸다. 욥기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첫째 대부분의 사람은 욥기의 주제를 ‘고통’ 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피조물>이다. 또 하나, 대부분 사람은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창세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 된 것은 욥기라는 것이다.

욥기의 기록 연대에 대한 가설들은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기의 기록 연대를 족장 시대인 BC2000년 이전으로 본다.⁵ 욥기의 전반부에는 욥의 고난 부분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후반부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⁶ 자신이 우주를 직접 창조하셨으며 다스린다는 사실을 설명하신다.

하나님은 물질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공간과 물질을 나누셨으며 모든 물질에는 중력을 부여 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는데, 성경은 땅의 기초를 놓다⁷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한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물질 우주는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하나님은 우선 빛을 만드셨다. 이 빛의 원천을 태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⁴ 창1:1

⁵ Bullock 2007, 87쪽.
Kugler & Hartin 2009, 193쪽.
Seow 2013, 17쪽.
Kugel 2012, 641쪽.

⁶ 욥38:1

⁷ 욥38:4)

태양은 빛의 원천이 아니다. 태양을 비롯한 하늘의 별들은 빛의 원천이 아니라, 빛을 내는 발광체에 불과하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穹蒼)을 만드셨다. 이 궁창은 대기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하다.

물질 우주는 기본적으로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었다.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만물은 공허와 혼돈 상태였으며,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물질과 물질을 구별하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셨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는 의미는 “존재 목적대로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이다. 만물은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별된다. 예를 들어 나와 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나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질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

블랙홀이 무엇인가? 공간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물질의 구별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블랙홀은 강력한 밀도와 중력으로 전자기 복사, 빛을 포함한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영역이다.⁸ 따라서 물질 우주의 창조 시점에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들을 나누었다고 하는 개념은 물리학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시간이다. 힌두교나 불교의 세계관은 시간이 본래부터 존재했었다는 인식론에서 출발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창1:1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히브리어에서 태초는 베레쉬트^{tyviarEB}로 쓰여 있는데, 어떤 이들은 전치사 베레^{rEB}를 연계형으로 보아서 창조를 시작할 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게 아니라, 베레쉬트^{tyviarEB} 뒤에 창조를 의미하는 바라^{ar:B}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 단어는 절대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연계형이나 절대형이냐의 싸움은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시간이 시작될 그 시

⁸ 천문학용어집. 한국천문학회 편 161쪽 우단 셋째 줄

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본래부터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되었다. 따라서 물질 우주는 공간과 물질 그리고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에너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공간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를 사용 해야 하고, 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모든 물질은 소멸 된다는 것은 일종의 물리법칙이다.

욥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과 공간 그리고 그것들이그 자리에 존재하며 이동하도록 하는 중력과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설명하신다.⁹ 존 뉴턴이 그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것은 1687년에 발표한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3,500년 전에 욥에게 중력의 원리를 설명 했던 것이다. 다만 인류의 지성이 그것을 이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의 기초라는 용어를 빌렸을 뿐이다.

욥기 38:4에 따르면 지구가 안정적인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지구에 적당한 중력을 부여 하셔서 물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¹⁰

태양계에 적당한 중력을 부여 하셔서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¹¹ 지구가 도는 속도, 즉 자전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위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해도 적도를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1,670km의 속도로 회전한다. KTX의 최고 속도가 시간당 305km이니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지구의 자전 속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면 엄청난 원심력, 즉 흩어지려는 힘이 작용해서 물이나 모든 것들이 우주로 흩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지구가 가지고 있는 끌어들이는 힘, 즉 중력(重力) 때문이다.

지금부터 약 4~5,000년 전쯤에 기록된 욥기에서, 하나님은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

⁹ 욥38:4-6

¹⁰ 욥38:9-11

¹¹ 욥38:12

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 내게 한 일이 있느냐?”고 말씀하신다¹².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원심력이라는 물리법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체가 우주로 흩어지지 않고 땅에 붙어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에 중력을 부여 하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별에도 각각 다르게 중력을 부여하셔서 천체는 일정한 궤도에 따라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도록 하셨다. 우리 은하에만 해도 수많은 별자리가 있다.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전갈자리, 큰곰자리 등의 별자리는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그 별자리를 형성하는 별들이 각자의 중력에 따라서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든 별의 중력이 같다면 우주는 무질서해질 것이고 파괴되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각각 다른 질량과 중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서를 이루어 조화롭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질서와 조화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도의 설계를 시행하신 결과라는 것이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직접 설명이다. ¹³¹⁴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태양은 지구의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에 적합한 파란색과 붉은색 빛을 최적의 강도로 제공하는데, 이는 태양의 크기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Km 떨어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는 직경이 6,370 Km로, 그 직경이 약 1%가 크거나 작으면 지구가 너무 뜨겁거나 추워서 생명체의 생존이 힘들다.

항성(恒星) 주위를 공전하는 대부분 위성은 타원형 궤도로 공전한다. 그러나 지구는 원형에 가까운 궤도로 공전하여 극단적인 온도변화를 최소화 시켜 준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궤도 반경 1억 5,000만 Km는, 지구 표면의 온도가 평균 14.4 C, 평균 바다 온도가 7.2 C로 유지하여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최적화된 거리다.

¹² 욥38:13

¹³ 네가 북두칠성의 별 때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큰곰자리와 그 별 때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욥38:31-33

¹⁴ Sarfati, J. [The Universe is Finely Tuned for Life](http://creation.com). Creation Ministries International. Posted on creation.com 1997, updated 2020.

공전궤도가 이보다 긴 화성에서는 생물은 얼어 죽고, 공전궤도가 이보다 짧은 금성에서는 생물은 타 죽는다. 태양이 생산하는 에너지의 변화가 크면 지구의 온도와 날씨,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데 태양은 거의 일정한(변화율이 0.1 % 이내) 에너지를 방출한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약 11만 Km로 비행기 속도의 약 100배나 빠르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이보다 빠르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바다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변하고, 더 느리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 녹아버린다. 지구의 무게는 생물들에게 적절한 중력을 제공하고 대기(질소 78%, 산소 21%, 기타 1%)를 적절한 기압 하에 있도록 붙들고 있다.

지구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대기 중의 질소 대 산소의 비율이 변화하여 생물이 살기가 어렵게 된다.¹⁵ 따라서 이 우주와 태양계 그리고 지구는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밀한 설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 지식 있는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우리는 수면의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무거워지면 땅으로 내려와 비가 된다는 과학적인 법칙을 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비가 내리지만, 날씨가 추우면 눈이 내린다는 것을 안다. 태풍이 부는 이유가 바닷물의 온도에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4,0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런 원리를 만드셨다고 설명하신다.¹⁶

이처럼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정밀함, 그리고 안정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창조 세계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작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주는 지금도 창조주의 지혜와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에는 이런 설명이 있다.

누가 바닷문으로 바다를 가두었을까?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구름으로 옷을 삼고 흑암으로 강보를 두르고,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지르며, 내가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치지는 못하리니,

¹⁵ 정교하게 설계된 지구 누가 만들었을까?. 권혁상. 창조과학 학회지 2013.4

¹⁶ 욥38:25-29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멈추리라” 하였느냐?

또 읊기 38장 24절부터 29절은 이렇게 설명한다.

빛이 쪼개지는 곳은 어느 길로 가느냐? 동풍이 땅에 흠어지는 곳은 어디냐?

누가 비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 번개를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인적이 없는 광야를 위하여,

황무하고 거친 땅을 축축하게 하며 풀이 돋아나게 하려 함이더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서리 곧 누가 낳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중에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하루에 두 번씩 밀려왔다가 밀려 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밀물과 썰물, 곧 조석 현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까?

그것은 달의 중력, 곧 달이 지닌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다. 달의 중력이 끊임없이 지구에 작용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바닷물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은 바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바닷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속에 산소가 공급되며 해류가 형성되고, 그 해류의 움직임을 통해 바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바람의 힘으로 구름이 움직이며, 그 구름은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하여 지구 곳곳에 비를 뿌리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지구 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 당시 읊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력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욥기 38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위에 줄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어서 욥기 38장 31~33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묘성의 띠를 매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너는 계절을 따라 별자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과 그에 딸린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네가 그 권세를 땅에 베풀 수 있느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왜 흩어지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사실을 처음 배웠을 때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다.

지구가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회전한다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닐까? 바닷물도, 식물도, 동물도 모두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려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알맞은 중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욥기 38장 13절은 이러한 사실을 매우 흥미롭고도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 더 좁혀 지구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와 물질세계를 모두 창조하셨다.
또한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세계를 함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피조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목적을 정하는 권한은 오직 창조주께만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이다.

진화론자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으며,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쳐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은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기원도 창조주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피테칸트로푸스(Pithecanthropus)로부터 한 계통은 원숭이로, 다른 계통은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이 피테칸트로푸스에서 호모에렉투스로 진화 했으며 호모에렉투스로 부터 현대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핵심은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였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피테칸트로푸스의 화석을 반드시 발견해야 했다. 진화론을 거의 신앙처럼 믿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그 화석이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1891년, 네덜란드 군의 군의관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 있던 뒤부아(Dubois)는 트리닐(Trinil) 지역의 솔로강 언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가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은 깨진 두개골 조각과 어금니 두 개였고, 1년 뒤에는 그곳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넓적다리뼈 하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진화론 학계는 크게 흥분했고, 이 화석을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Pithecanthropus erectus), 즉 호모 에렉투스의 한 종류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두 개의 치아는 오랑우탄의 것이었고,

두개골 조각은 긴팔원숭이의 두개골 윗부분이었으며,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넓적다리뼈는 현대인의 대퇴골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1912년에는 마침내 영국에서도 피테칸트로푸스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찰스 도슨(Charles Dawson)은 영국 이스트서식스(East Sussex)의 필트다운(Piltdown) 에서 피테칸트로푸스의 두개골과 아래턱뼈, 그리고 송곳니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영국박물관은 이를 피테칸트로푸스의 화석으로 인정했고, 곧 학술지에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석은 나중에 완전한 조작으로 밝혀졌다.

1953년 재조사 결과, 두개골은 현대인의 것이었고, 아래턱은 오랑우탄의 것이었으며, 송곳니는 침팬지의 것이었다. 또한 오래된 화석처럼 보이도록 누군가 크롬 용액에 담가 인위적으로 착색한 사실도 밝혀졌다. 필트다운인(Piltdown Man) 사건은 고인류학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화석 위조 사건이다.

당시에도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권위 있는 학술지에까지 발표되어 진품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조로 밝혀졌을 때 학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필트다운 화석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1921년, 스웨덴의 지질학자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son) 과 미국의 고생물학자 월터 그레이저(Walter Granger) 는 중국 베이징 근교 저우커우톈(周口店) 에서 화석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중국의 고고학자 페이원중(裴文中) 이 그곳에서 거의 완전한 두개골을 발견했다. 이 화석은 오늘날까지도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의 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화석의 원본이 현재 완전히 사라졌으며, 지금은 아무도 그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중국 윈난성 위안머우(元谋) 에서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도 큰 화제가 되었다.

나의 주요 사역지가 중국 윈난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 원모와 함께 그곳을 직접 방문했다.

(아들의 이름도 '元謀'이다.)

우리는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박물관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원본 화석이 아니라 모형만 전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원본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베이징박물관에 있을까 생각했다. 여러 차례 그곳을 방문하여 확인했지만 없었다. 그렇다면 타이베이의 박물관에 있을까 생각했다. 직접 찾아가 확인했지만, 그곳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원본은 어디에 있을까?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피테칸트로푸스의 진본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처음부터 허구적인 이론 위에 세워진 가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도 있다.

이 세상에는 각자의 자연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생물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물들은 진화를 통해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각각의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일까요?

욥기 39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산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밴 것을 네가 지켜보았느냐? 그것들이 몇 달을 채워 새끼를 낳는지 네가 세어 보았느냐? 그것들이 새끼를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웅크리고 새끼를 낳은 후 해산의 고통을 마친다. 그 새끼들은 들에서 자라 힘을 얻고, 어미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산염소는 일반적으로 9월경에 짝짓기를 하고 임신하여 약 6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친 후, 새로운 풀이 돋고 먹이가 풍부해지는 4월경에 새끼를 낳는다.

왜 그럴까? 자연환경에 적응한 결과일까? 오랜 진화를 통해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것일까? 혹은 하나님께서 산염소에게 약 6개월의 임신 기간을 부여하시고, 자연환경의 질서에 맞추어 짝짓기하고 임신하며 새끼를 낳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일까?

동물들의 번식 시기와 임신 기간은 우연의 산물로 보아서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적과 질서 가운데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산염소가 가을에 짝짓기를 하고 봄에 새끼를 낳는 이유는, 봄이 먹이가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하여 새끼가 가장 잘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러한 질서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정하셨다고 설명한다.

계절에 따른 일조량의 변화, 호르몬의 작용, 동물의 행동, 생태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섭리와 지혜를 보여 주는 증거이며, 창조 세계가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욥기 39장 5-12절은 들나귀와 들소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설계에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⁷

이어지는 욥기 39장 13-18절에서는 타조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볼 수 있다.

먼저 타조는 학이나 다른 새들처럼 날개 있지만 날지 못한다. 뛰어 다니기 때문에 날개가 퇴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또 타조는 다른 새들과 달리 알을 모아 품지 않고, 모래 위에 알을 낳아 둔 채 떠나 버린다. 그러면 바람에 모래가 덮이고 태양의 열이 모래를 데우면서 알이 자연스럽게 부화한다. 부화한 새끼들은 제 어미를 알지 못하고, 어미 역시 새끼를 특별히 돌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타조는 날지 못하는 대신 매우 뛰어난 달리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타조가 달리기 특화된 것은 자연선택과 진화의 결과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조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설명합니다.¹⁸

¹⁷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껄이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욥39:5-12)

¹⁸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충명을 주지 아니함이라(욥39:17)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다. 이제 욥기 39장 27-30절을 살펴보자.

"독수리가 네 명령을 따라 높이 치솟으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짓느냐? 그는 바위 절벽에 살며 밤에도 거기 머문다. 험준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 거기에서 먹이를 찾으며 그의 눈은 멀리까지 살핀다. 그의 새끼들은 피를 마시며, 죽은 짐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있다."

독수리는 특히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높은 하늘을 날며 먼 곳까지 살펴 먹잇감을 찾고, 높은 절벽에 둥지를 튼다. 또한 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먹으며, 특히 피를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연적인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들나귀, 들소, 타조, 독수리 등 각각의 동물이 서로 다른 습성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자연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으로 설명한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하자. 욥기 40장에는 베헤못이라는 기이한 동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하마(Hippo)라고 번역했었다. 그런데 소개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마는 아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내면서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音譯)해서 베헤못이라고 했다. 여기 등장하는 베헤못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선 이 동물이 풀을 먹는다는지, 먹이 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물속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어찌면 하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동물은 하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꼬리에 대한 설명이다.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베헤못의 꼬리는 백향목처럼 크다.¹⁹

백향목은 레바논에서만 자라는 거대한 크기의 나무이다. 삼나무와 비슷하기는 한데, 삼나무는 속

¹⁸

¹⁹ 욥40:17

이 물러서 건축재료로 쓰기가 어렵다. 하지만 백향목은 속이 단단해서 최고의 건축재로 쓰였다. 솔로몬의 성전 역시 내부 마감재로는 이 백향목이 쓰였다. 백향목은 크다 못해 거대하다. 일반적으로 10m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약 30m까지 자란다.

그런데 이 베헤못은 백향목 같은 꼬리를 흔들며 풀을 뜯는다.

하마의 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는가? 몸집에 비해 작고 보잘것없다. 그리고 평소에는 흔들지 않고, 대변을 볼 때만 흔들어서 자신의 변을 사방으로 날리는 용도로만 쓴다. 그러나 베헤못의 꼬리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약 10m이다. 꼬리가 10m라면 몸길이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적어도 30m는 되지 않았을까? 세상에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긴 생물은 새 같은 조류들 외에 포유류나 파충류 중에는 없다.

그러니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하마로 번역했지만 새롭게 번역 작업을 하면서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베헤못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베헤못의 정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몇 년 전에 공룡들이 어린아이들을 매료시키던 때가 있었다. 쥐라기 공룡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그 이후로 수많은 TV 시리즈가 나오고, 소위 공룡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고무 모형들과 여러 가지 그림책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그 무렵에 내 손자들 역시 공룡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만화 영화를 보았으며 제 엄마 아빠를 졸라서, 수 많은 모형들을 사 모았다. 그 덕분에 나 역시 공룡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공룡 중에는 육식 공룡이 있고 초식 공룡이 있는데, 육식 공룡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것은 티라노 사우르스 이고, 등어리에 뿔 같은 돌기가 솟은 스테고 사우르스, 영양처럼 예쁘게 생긴 안킬로사우루스 등 정말 수 많은 공룡들이 등장했고, 내 손자들은 그것들의 이름을 거의 외었다.

육식을 하는 공룡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초식을 하는 공룡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초식 공룡들은 육식 공룡들에 비해 몸집이 더 거대했다. 그들은 푸른 초원지대에 거주했으며 풀이나 나뭇잎

들을 먹었다. 그들 대부분은 목이 긴 용각류들인데, 크기는 약 30m를 초과했으며, 그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르헨티노 사우르스라는 것도, 손자들에게 배운 지식이다.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 공룡들은 실재했었고, 방금 말한 아르헨티노 사우르스라는 이름의 공룡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거대 공룡의 화석에 붙인 이름이다. 몸길이 35m에 무게는 60~80톤 정도로 추정한다²⁰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베헤못의 정체를 공룡의 한 종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공룡으로 추정하는 것이 하마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베헤못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할 리워야단에 대해 이야기 한 다음에 밝히도록 하자.

욥기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생명체가 등장한다. 리워야단! 이름 에서부터 뭔가 섬찟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한글 개역성경은 이 리워야단을 악어(鰐魚)라고 번역했었다. 하지만 개역 개정판을 만들 때는 이 역시 악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音譯)해서 리워야단이라고 했다. 하마로 번역했었던 베헤못을 그대로 음역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왜 번역을 바꾸었을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이 아무리 살펴봐도 악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동물은 콧구멍에서 연기를 피워내며 입으로 불을 뿜어낸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입김으로 숯불을 지필 수도 있다. 거기다가 목덜미 힘이 유난히 강하고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다.²¹ 또 욥기 41:5에 따르면 이 생명체는 날아다닐 수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이 동물을 아무리 살펴봐도 악어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서 리워야단으로 번역했다. 물론 영어 성경들 역시 리워야단(Leviathan) 번역했다. 그러면 이 동물은 상상의 동물일까? 누가 보아도 이 동물의 정체는 분명하다. 그것은 용(龍.Dragons)이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유럽

²⁰ Paul, G.S. (2019). "Determining the largest known land animal: A critical comparison of differing methods for restoring the volume and mass of extinct animals" (PDF). 《Annals of the Carnegie Museum》 85 (4): 335-358. doi:10.2992/007.085.0403.

²¹ 욥41:18-24

에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용이 실재했었으며 그것도 고대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다.²²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욥40:15 말씀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베헤못을 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 상상의 동물이었다면 보라는 말씀 대신, 그냥 설명하셨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보라(히네)hNEhi” 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로 쓰이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가리키면서 저 베헤못을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누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리워야단 역시 이 보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베헤못을 봐라! 리워야단을 봐라.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욥과 공룡(恐龍), 용(龍)이 동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²³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너 저것 좀 봐라! 라고 하실 리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욥은 그것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반증이다.²⁴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약 500억 년으로 추정하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다. 그중에 중생대에는 트리아스기와 백악기 쥐라기가 있었으며 특히 백악기와 쥐라기에는 파충류, 즉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 이야기는 잡지나 TV에서 늘 듣던 이야기라서, 누구나 아! 그랬었구나, 오랜 옛날에 인간이 생겨나기 전에는 파충류들만 지구에 존재했었고, 그들은 엄청난 몸과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한참 후인 근생대에 비로소 호모에릭투스라는 인간의 종이 나타났고,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에 지금의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구나! 하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²² World Book of Encyclopedia 1973 p.265

²³ Dinosaurs in Literature, Art & History of Europe

<웹사이트genesispark.com, s8int.com, 발췌>

²⁴ St. Davids Dragon—Fantasy or Reality? by Brian Thomas, Ph.D.

것은 상식(常識)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단 6일 동안 이 물질우주를 창조하셨다.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내 딸 때문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교회 학생회 예배에 가는 길에 중학교 1학년인 큰딸이 물었다. 아빠! 쥐라기 시대에는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교회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웠고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TV에서 쥐라기 시대에는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으니, 6일째 되는 날 이미 창조된 아담은 그때 어디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이 아이의 질문은 쥐라기가 몇백 만년 계속되었는데, 창조 육 일째 되는 날 이미 창조된 인간은 그 긴 시간 동안 어디서 있었기에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분명히 6일 창조를 믿는다고 말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도 지구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 되었으며, 지금의 포유동물들이 번성하고 인간이 지구를 대표하는 생명체가 되기까지 캄브리아기, 백악기, 쥐라기 등 기나긴 시대를 지나면서 차츰 암모나이트 같은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기본적인 갑각류 생물, 그리고 파충류와 시조새라는 조류로 발전해 왔으며 근생기에 이르러 포유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별 의심 없이 그냥 성경의 창조론은 창조론이고, 진화론은 그냥 진화론이라고 생각했으며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딸의 그 질문을 받고 이원론적인 내 생각에 근본적인 질문이 몰려왔다.

두 개의 설명이 동시에 진리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둘 중 하나는 틀린 것 아니, 의도적인 거짓이었다. 6일 창조가 거짓일까? 아니면 오래된 지구에 관한 이야기, 캄브리아기 백악기 쥐라기로 이어지는 이 설명이 조작된 거짓말일까?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그때부터 내 관심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일에 집중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 연구하면서 세계에 수많은 과학자가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이 <창조과학 학회>를 만들어 자신의 연구 결과들을 학회지에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논문들을 읽으며 <성경적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즉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창조를 믿는다면, 존재 목적을 창조주가 정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제2장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어떤 종교 경전을 살펴봐도 신(神)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곳은 없다. 신을 잘 섬김으로써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거나, 혹은 그 신의 도움으로 사후에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있어도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다. 중국의 전통에서 황제(皇帝)는 신의 아들 즉 천자(天子)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황제의 권위를 하늘로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이 거짓말은 아주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들을 속이는 가르침이다. 창세기 3장의 기록에 따르면, 에덴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인간을 유혹했다. 창세기 3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는 말에, 이브는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인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이런 권한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 뿐. 절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혹의 핵심이었다.

너는 충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면 너도 충분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다. 사실 사탄도 이런 탐심에 빠져서 타락

했다.

유다서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천사들이 곧 마귀와 그의 부하들 곧 귀신들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²⁵

여기서 말하는 화자(話者)는 사탄 곧 마귀이다. 계명성이라고 알려진 이 존재는 어떻게 해서 영적인 우주 곧 하늘에서 쫓겨나 땅, 곧 물질 우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는 영적인 우주에서도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라고 스스로 다짐한 걸 보면 영적인 우주에서 으뜸의 자리, 즉 최고 지위에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다. 그에 대해서 영어 성경인 king James는 루시퍼로 번역했는데, 루시퍼가 누구일까? 루시퍼는 천사장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장인 루시엘 이었다. 루시엘 가브리엘 미카엘 등 천사장들의 이름 뒤에는 꼭 엘^{la} 이 붙는다. 엘은 신(神)적인 이름일 만큼 대단한 능력과 권세 그리고 위엄을 가진다. 그러니까 루시엘은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난 존재였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루시엘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며 영적인 우주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탐심이 일어났다. 이 부분은 이사야 14:14은 그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라는 그의 독백(獨白)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은

²⁵ 사14:12-14

구름 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위와 인기가 높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정해주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정해주신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표현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영적인 우주가 되었던 물질 우주가 되었던 모든 존재들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오직 한 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면서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 존재하시는 원인과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선(善)과 악(惡)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선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악은 무엇인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일이다. 물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나쁜 일이고 악이다. 이게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죽음을 각오할 만큼 나쁜 일일까? 선악과를 먹으라는 마귀의 말에 이브의 대답은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귀는 내가 저 열매를 먹으면 선(善)과 악(惡)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막으신 것일 뿐, 절대 죽을 리가 없다고 했다. 아무튼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

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로워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기사가 쉽게 납득이 되는가? 나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었다. 무엇이 나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인가를 안다는 것은 사람이 철이 났다는 것이다. 누구나 점차 철이 들면서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를 알게 된다. 물론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이나 교육을 통해 알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인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 생각 없는 존재이거나 로봇 같은 존재이기를 바라셨던 것일까?

요즘 식당에서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라다 주는 일을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이 로봇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한 그대로 움직이는 것뿐이다. 이런 기술을 AI 기술이라고 부른다. 전투로봇 역시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의 조종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어디를 공격하든지 혹은 위성을 통해 지금 누구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한다. 로봇 스스로 공격 대상을 정한다든지 혹은 스스로 공격할 시점을 정하는 못한다. 만약에 로봇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이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공상 과학 영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루는 만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인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일까?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까봐 막으신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선이란 무엇인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성경에서 선(善)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토브**b/f** 이다. 토브란 ‘좋은 일’ 혹은 ‘기쁜 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선(善)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부터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먼저 땅과 바다를 나누신 후에 땅에 식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땅과 바다를 나누고 열매 맺는 식물과 과일나무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볼 때 선(善)했다는 것이다.

창조 4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다. 특별히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을 비추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 밤을 비추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며 그것으로 계절(季節)과 날(日)과 해(年), 즉 시간을 구별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b/f**했다.

창조 5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바다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b/f**. 다시 말하면 선(善)했다.

창조 육 일이 되어서 하나님은 땅에서 생존하는 파충류들과 포유류 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물들이 선해 보였다. 여기서 선했다는 것은 착해 보였다는 뜻일까? 혹은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뜻일까?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즉 존재 목적에 꼭 맞게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선(善)이란, 존재가 창조 목적에 합당하다는 뜻이다.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되었다는 뜻이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창조된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고, 그 존재 목적을 정하는 것

은 창조자이다. 존재 자체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정하신다.

그런데 인간이나 천사장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하려 한다면 다른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을 정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며,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은 존재의 목적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존재의 목적을 정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叛逆)이다.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찌 되는가? 반역의 대가는 사형(死刑)이다.²⁶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그것은 곧 사망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에 달린 엄중한 문제이다.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만 한다.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지옥이다.²⁷

아담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안전장치로 마련된 선악과를 자신이 먹음으로써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동참했다.²⁸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복음 사건을 약속하시고²⁹ 마침내 인간의 반역죄를 용서하셨다.

²⁶ 롬6:23

²⁷ 통으로 읽는 복음. 구본식 저. P110

²⁸ 통으로 읽는 복음. 구본식 저. P28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어야 한다.³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곧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식했고 또 그렇게 고백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어렵게 알았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죽였을까?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했다.³¹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유명한 주기도문(主祈禱文)이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수호천사들이거나 수호성인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놀라운 변화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다. 물론 중국 유교의 가르침에서 황제를 천자(天子)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그 하늘은 창조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우주

²⁹ 창3:15

³⁰ 엡2:1-3

³¹ 막6:9

적 원리³²에 불과하다.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도 야훼나 알라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엄두를 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니? 아담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이래 아담의 후예들은 여전히 반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사건 때문에 가능해졌다. 한 번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에 참여한 이상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벌은 죽음이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형”이라고 분명히 선언한다.³³ 여기에 예외는 없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은 반역의 대가로 죽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노라고 선언한다.³⁴ 어찌 보면 바울 혼자서만,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 되실 때 함께 처형되었다. 예수께서 처형되신 것은 로마의 죄수로 처형되신 것이 아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저지른 인간의 반역죄를,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수괴(首魁)로 처형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한다.³⁵ 예수는 마지막 아담으로 처형되셨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아담의 종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모든 아담의 종족들이 함께 죽은 것이다.

³² 세계관을 분별하라. 안점식 저 P178

³³ 롬6:23

³⁴ 갈2:20

³⁵ 고전15:45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절망적으로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갈라디아서 2:20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지금 자신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를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한 바울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설명한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³⁶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다. 이것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것을 확증한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³⁷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³⁸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한 아담의 후손들은 반역의 책임을 지고 멸절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는 인간의 반역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³⁶ 창2:7

³⁷ 롬6:23

³⁸ 마3:17, 마17:5, 막1:11, 막9:7, 눅3:22, 벰후1:17

모든 종교나 철학은 인간이 수련을 통해 신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립한다. 불교에서도 종교적 수련을 통해 인간이 부처, 곧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도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내단, 혹은 외단 수련법을 통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내단이란 호흡법의 일종이고, 외단이란 특별하게 만든 단약(丹藥)을 복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수련을 계속하면 불로장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선이 될 수도 있는데, 신선이란 일종의 신적 경지에 도달한 존재이다. 힌두교나 자이나교 역시 인간이 고도의 수련을 통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일반론에 기초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³⁹

어린 시절에 내 후배 중에 상당한 고위직 부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당시에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후배의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 자주 출장을 다니셨다. 그런데 어느 여름 방학에 이 후배의 가족들이 하와이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했다. 세상에 하와이라니? 하와이가 어디인가?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에덴 같은 곳 아닌가? 그런데 그 하와이로 가족 여름휴가를 간다는 거다.

그 후배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가 비행기를 많이 이용해서 마일리지(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이해를 못 했었다)가 쌓여서 그걸 이용해 하와이로 간다는 거다. 아무튼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니 여름휴가로 하와이도 가고, 또 뉴욕에도 가는 거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버지 덕분에 하와이도 가고, 필요한 악기도 선물 받고, 가끔은 운전기사가 딸린 아버지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자녀로서의 권리(權利)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우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면서 존재 목적을 자신이 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물들의 존재 목적도 자신이 정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않는 존재이다. 그러니 인간과

³⁹ 세계관을 분별하라. 안점식 저. P93

하나님과 관계는 원수 관계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역자인 자신의 목을 잘라서 들고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가려는 인간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자르는 대신에 다른 짐승의 머리 곧 희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가리고서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만인 제사장 설을 주장했는데, 만인 제사장설이 무엇인가? 율법 시대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으므로 제사장이 대신 나갔다. 그것도 반드시 희생제물과 피를 가지고 죄의 대가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 설의 핵심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거듭났다는 것을 한자어로 중생(重生)이라고 하는데, 중(重)이란 무겁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글자가 어떤 단어에 앞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 더, 혹은 겹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산 능선이 여러 겹으로 중첩(重疊) 되었다”는 시적(詩的) 표현이 있는데, 산 능선이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겹쳐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선물 받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인간의 생식능력과 상관 없이, 인간의 노력과 상관 없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 새 생명은 인간의 반역죄와 관련이 없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들의 특권이다.

아들은 징계받지않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 저주가 무엇일까? 히브리어에서는 아라르⁴⁰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라르는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는 의미이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뱀 곧 마귀를 저주하셨다. 마귀는 저주받았으므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야고보 선생은 그의 편지에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 떨 뿐 회개하지 못한다.⁴⁰고 했는데,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는 까닭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인간은 저주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¹ 그 재판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는 대신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복음 사건을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반역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나 끝내 자신의 반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복음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은 사실상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저주받은 마귀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죽어 버린 내 옛사람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 없는 옛사람의 행태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옛사람의 영향력은 새 생명이 자라나면서 점차 쇠퇴하겠지만, 내 영적인 성숙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나를 징계하신다. 그러나 그 징계는 내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이지 저주와 같은 징벌은 아니다.

⁴⁰ 약2:19

⁴¹ 요3:16

징벌과 징계는 다르다. 징벌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징계는,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사랑이다. 모든 아버지는 자녀가 올바르게,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드는 등 호되게 질책하기도 한다. 그것을 징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정도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구원을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저급한 것이다. 구원은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천국에는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구원을 받는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게 최고의 복이다. 굳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워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개를 훈련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개들은 참으로 영리하고 강인하다. 그러나 개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이나 수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내 손자의 이름은 교준이다. 성이 구가(具家)이니, 구교준(具教濬)이다. 이 아이를 향한 내 유일한 관심이 무엇이겠는가? 잘 자라는 것이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제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더니 이제 제법 당당하게 잘 걷고, 말도 못 하더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만큼 말도 한다. 이제 점차 더 자라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어른이 되어갈 것이다. 물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많은 자기 절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본능에 따라 살면 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그 일은 내 옛사람을 훈련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옛사람은 아무리 훈련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새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⁴²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날마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 대가로 자녀들에게 필요를 베풀어 주지는 않는다.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학비를 지원하며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운다.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내가 정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내 필요들을 채우신다. 내게 재능과 기회를 허락하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며,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신다. 육체의 힘을 허락하셔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타락의 결과로 노동은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⁴³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어찌 살았을까? 아담은 직업이 있었을까? 물론이다. 아담은 에덴동산으로 상징되는 물질세계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만물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만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다.

아담의 직업은 생존을 위한 조건이 아니었으며,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의 직업은 단

⁴² 갈2:20

⁴³ 창3:19

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 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일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전적(事典的)으로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 이전에 상태로 돌아왔다. 그게 바로 회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다만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각자의 직업에 따라 일을 한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목적을 위해 일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이다.

이방 종교에서는 무조건 신의 도움만을 바란다. 신의 도움으로 행운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신에게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기도 한다. 신을 마치 재판기처럼 취급한다. 재판기는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묻지 않고, 일정한 동전을 투입하기만 하면 그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내어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기처럼 일정량의 투입이 있으면 무조건 무엇인가를 내어놓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욕심을 채움으로 얻어지거나 혹은 자신의 소유를 버림으로 주어지는 행복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것을 비우게도 하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도 하신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과 직업을 대하고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榮光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反影)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떼를 쓴다는 뜻이 아니라, 점차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장을 마무리하자.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러나 복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제3장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그리스·로마 신화나 인도의 힌두 신화에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신들은 많은 자녀를 두기도 하고, 사랑의 삼각관계로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은, 미스 여신 선발대회에서 아프로디테(비너스)가 신들의 여왕 헤라

와, 처녀신 아테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자신이 미(美)의 여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되면서부터, 이 여신들의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티탄 신족(神族)의 여신 디오네의 딸이다.⁴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잘린 생식기(生殖器)의 피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 가이아가 바람둥이인 자신의 남편 우라노스를 응징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들인 크로노스가 동참하여 우라노스에게 반역할 때, 우라노스를 생식기를 잘라 바다에 던졌는데, 이 때 우라노스의 잘려진 생식기에서 흘러 나온 피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으며, 따라서 아버지는 우라노스이지만 어머니는 없다.

아무튼 그리스의 신들은 마치 인간들처럼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있으며 반역과 음모를 일으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남자 신이 인간 여자를 유혹하거나 강간하여 영웅을 탄생시킨다거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인간 아이네이아스를 사랑하여 그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았다는 등으로 신과 인간은 상호관계 속에서 얽혀 있다. 또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주고, 제우스로부터 코카서스 산꼭대기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게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힌두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신은 가네샤이다. 가네샤는 인간의 몸 위에 코끼리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데, 힌두에서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이 가네샤를 신앙한다. 그런데 가네샤가 그런 형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다.

힌두 신화에 따르면 가네샤의 어머니인 파르바티가 목욕을 하던 중 누군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까, 걱정되어 자신의 때를 뭉쳐 아들을 창조했는데 이 아들이 바로 가네샤다. 파르바티는 자신이 목욕하는 동안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네샤에게 단단히 지시했다. 이때 출타해 있던 파르바티의 남편 시바가 집에 돌아왔다. 가네샤는 고지식하게 아버지 시바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⁴⁴ 호메로스, 《일리아스》 5.370

막았고, 시바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자, 화가 나서 가네샤의 목을 날려버렸다. 뒤늦게 나온 파르바티는 사실을 알고, 펄펄 뛰며 살려내라고 화를 냈다. 시바는 다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코끼리의 목을 베어 가네샤의 몸통이에 얹어 주었다. 그래서 가네샤는 인간의 몸에 코끼리의 머리라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그리 저급한 신이 아니라 거룩하시며, 그의 아들인 성자(聖子) 역시 그리스 신화의 영웅호걸이나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그리 저급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거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성자께서 창조되었거나 성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논쟁은, 교회사적으로 오래된 논쟁이었으며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의 핵심은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나셨다는 주장과, 성자는 영원 이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다는 주장의 싸움이었다.⁴⁵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는 ‘성부’에 의해 시간 이전에 창조된 존재(피조물)이며, 성부와 함께 영속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리우스에 따르면 성자가 곧 성부라는 성경의 증언은 비유적 표현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성자와 성부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보았다. 그는 성자가 성부의 아들이라면 성부가 성자를 낳거나 창조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성자가 시간이라는 개념 즉,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존재했을 수 없다고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25년 소집한 최초의 세계 공의회인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뒤이어 두 번째 세계 공의회인 381년의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도 아리우스주의는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이단임을 확언(確言)했다.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경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

⁴⁵ 남정현, 《콘스탄티누스 가문의 기독교적 입법정책》, 한국학술정보, 2013, 25쪽

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 본질적으로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의 외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삼위 일체론을 믿는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성부에게서 발생했거나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께서는 영원한 시간 이전에 함께 존재하셨으며 그 삼위(三位)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때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단일신(單一神)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일신론(單一神論)이란, 한 본질에 삼 위격(位格)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한 격(格)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단일신론(monarchianism)에서 ‘monarch’라는 말의 뜻은 군주라는 의미이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군주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성부만이 참된 하나님으로서 군주처럼 군림(君臨)한다는 것이다.⁴⁶

이 단일신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양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뿐,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성령 하나님은 별개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활동하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인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과 관련하여 교회학교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비유가,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의 남편이다. 하지만 나는 셋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는 설명이다. 이것을 단일신론이라고 한다.

⁴⁶ 조덕영 칼럼 ‘양태론’이 이단인 이유는 무엇인가, 크리스찬투데이, : 2012.09.13

또 하나의 잘못된 설명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완전한 삶과 일을 위해 신성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의 다양한 변형은 예수가 세례를 받거나 승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은 위대인 인간인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거나 혹은 입양되었다는 것인데⁴⁷ 이 모든 이론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한국에서 소위 안상홍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의 신학은 양태론의 또 다른 예다. 그들은 양태론이 진정한 성 삼위일체라 생각한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안상홍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에 따라 성령에도 이름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이름은 안상홍이다. 안상홍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의 예언을 성령으로 이루셨기 때문이다. 성령 안상홍 하나님은 3,500년 전 홍해를 가른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며,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이전부터 성자로 존재하셨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고백에 담긴 신앙이다. 이것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시며 복음 사건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셨으며, 성령으로 택한 자들의 마음을 감동 시키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라든가, 성적(性的)인 관계에 의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따라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劣等)하신 분이 아니다.

⁴⁷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신학논쟁들 '단일신론과 양태론' 크리스천투데이, 2006. 07. 21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 흔한 이름이었으므로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여 그분을 나사렛 예수, 혹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다. 혹은 그분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Cristov**)라 지칭한다. 메시아는 완전한 통치자로서 왕이시며, 의(義)의 교사이고, 동시에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지닌 약속된 존재이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다. 하스모니안의 왕들은 모두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었으며, 시몬을 비롯한 몇몇 왕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⁴⁸

그러나 그 때문에,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들과 할 수 있는, 하시딤들의 반감을 샀으며, 그들 중에 과격한 일파가 사해 동쪽 옛세네 지역으로 도망하여 의(義)의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스모니안 왕국의 왕은 메시아로 인정될 수가 없었다.

하스모니안 왕가의 통치가 끝나고 이방인 헤롯이 유다의 통치자가 되고, 로마가 직접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고, 로마를 물리친 유대는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요한 스스로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했다.⁴⁹

그런데 참 메시아가 오셨다.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러나 민중들은 나사렛

⁴⁸ 친구약 중간자. 레이몬드 질버그 지음. 김의원 역. P54-63

⁴⁹ 요1:20

촌 출신인 그 분이 메시아일 리 없다고 단정했다.⁵⁰.

그러나 그분은 참 메시아이셨다. 그분은 죄로 오염된 땅에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실 왕이시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이끄실 선지자 즉 의(義)이 교사이시며, 인간들이 지은 반역죄를 죄 없으신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씻어 없애는 제사장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분의 역사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인가? 그분이 신적인 능력 행하심을 믿는다는 말인가?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물질 우주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단군 신화에서는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비(雨)의 신과 바람(風)의 신을 거느리고 태백산 아래 신시(神市)를 건설하고 사람으로 변신한 암곰, 즉 웅녀와 관계를 맺고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가난과 질병, 전쟁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노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죄라면 죄를 없애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은 다양하다. 살인이나 강도 혹은 강간 같은 무거운

⁵⁰ 요1:36

죄가 있고, 작은 도둑질, 가벼운 거짓말, 화를 못 참고 때린 뽀 한 대 정도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도 있다. 이런 종류의 죄를 없애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그것도 그의 외아들은 대신 죽여야 한다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알려주어도 “그래요? 고맙네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어쨌든 고마워요” 정도의 반응을 보일 뿐! 진정으로 거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어쨌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것은 어떤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뭐 그렇게 까지 결벽증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그렇게 까다로운 하나님과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이청준 씨의 원작 소설을 이창동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한 아이가 유괴당해 죽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작은 도시에 내려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사는 여자였는데... 작은 거짓말 정도를 했을지 몰라도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다. 그런데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이 아이를 유괴했고, 어쩌다 보니 이 아이를 죽게 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유괴 살인범은 체포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살인범은 재판을 받고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갇혔다. 주인공인 여자는 죽을 만큼 슬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이웃의 전도를 받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차츰 슬픔이 잦아들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교인들은 이 여자를 진심으로 도왔고, 위로하며 격려했다.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금요일 예배에서, 아들을 죽게 한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는 놀라운 간증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가르치셨으니 그 가르침대로 그 살인범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했다. 그 순간 교회 전체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 서로 부둥켜안았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자는 살인범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았다. 면회를 하

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노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나는 당신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생각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내내 이 여자는 생각했다. 순간의 실수로 어린아이를 죽게 한 그 사람은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를 생각했다.

마침내 그가 면회실로 들어섰다. 그런데 한 없이 초췌할 것이라는 상상과는 달리 이 사람의 표정은 전혀 초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환하게 빛이 났다. 어쩌면 후광이 비치는 것 같기도 했다. 여자는 몹시 당황했다. 뭐지, 저 태도와 표정은 뭘까?

남자는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감옥에 와서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니, 지금은 그렇게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였다. 자매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들으며 여자는 폭발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난데... 내가 아직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한다고 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 한다는게 말이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난데,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용서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청준 작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이고, 쉽지 않은 질문이다. 막상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어야 하는 걸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죄 없다 하셨으면, 당연히 그의 무기 징역은 사면되고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경우가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종교적 관념에 불과한 것이고, 혹시 죽어 천국에 갈 때만 필요한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그리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 더구나 죽은 후에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문제이니, 혹시 용서를 받아 두어서 손해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꼭 해야만 할 일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보다는 우리의 질병, 가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단지 네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아들을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진노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처형하신 것일까?

우리는 내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내가 이웃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처벌을 대신 하셨다고 설명한다.

나는 오랫동안 그 설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니, 절대 동의가 되지 않았다. 동의가 되지 않으니 믿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갔다. 사도신경도 열심히 외우고, 찬송도 예배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허울 속에 덮어두기로 했다. 신앙은 복잡하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야! 그러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신앙은 복잡한 설명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월등한 거라고 스스로 속이기로 했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는 죄 문제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 *harmartiva*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인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과녁을 빗나갔다. 혹은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엡2:1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할 때, 허물 *paravptwma*역시, 좀더 개인적인 잘못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어디에서 벗어났을까? 무엇에서 벗어났을까? 그것은 존재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이미 설명한 그대로 존재하게 된 모든 것 들은 창조주가 부여한 존재 목적이 있다. 죄란 그 존재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다.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존재 목적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이 문제는 심각하다.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다. 그 창조자를 우리는 “창조주(創造主)”라고 부른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당연히 창조한 모든 것 들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창조하신 주인이 당연히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 들의 존재 목적을 정한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反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대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신을 창조의 주인으로 선언했다는 뜻이다. 만물의 존재 목적을 자신이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은 이제부터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두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역(叛逆)이고 반란(叛亂)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선언한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말에 불구대전(不俱戴天)의 원수(怨讐)라는 표현이 있다.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라는 뜻이다. 같은 하늘 아래서는 절대 함께 살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선포한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찌 되었는가? 하나님과는 불구대전의 원수가 되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라고 선언하고, 인간의 행복을 존재 목적으로 정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과 함께 평화롭게 산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고, 그로 인해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죽음의 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반역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하지만 이 반역죄는 한 번 일어난 이상, 그냥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라고 부른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公義)로 우심으로 인해 인간의 이 반역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실 수 없다. 반역죄를 저지른 이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 즉, 처벌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형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을 사망⁵¹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대신에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 이 바로 영생이다. “죄의 값을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로마서의 설명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복음 사건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⁵²고 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옳바르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옳바르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 목적을 회복한다는 뜻

⁵¹ 롬6:23

⁵² 롬1:17, 3:22

이다. 인간은 반역죄를 저질렀으므로 스스로 존재 목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스스로 존재 목적을 회복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실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反影)하고 만물을 관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심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이 존재 목적을 바꾸는 것을 원죄(原罪)라고 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의(不義)이다. 한 번 일어난 이 불의는 점차 줄어들거나 고쳐질 수 없다. 이미 일어난 반역은 그 반역을 도중에 멈추거나 후회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역으로 인한 불의(不義)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을 용서하려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 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형이다. 따라서 모든 아담의 종족들은 반역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당연히 죽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이다.⁵³ 여기에서 대두되는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다.

복음 사건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서,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인간의 반역죄를 용서하셨다는 소식이다. 이 복음은 언제 선포되었을까? 인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선포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시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약속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⁵³ 요3:17

제4장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예수님.

기원전 6세기경 현재의 네팔 남부와 인도의 국경 부근 히말라야 기슭에 카필라바스투(가비라성, 지금의 네팔 티라우라코트)을 중심으로 샤카 공화국이 있었다. 싯다르타는 그나라의 왕 슈도다나(Suddhodana, 정반왕)와 마야부인(Mahamaya) 사이에서 태어났다.

슈도다나(정반왕)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왕비가 여섯 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임신했다. 마야부인은 출산이 임박하자, 당시 풍습에 따라 친정인

데바다하(Devadaha구리성)로 향했는데, 음력 4월 8일 룸비니에서 꽃이 만발한 무우수 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570년경 메카에 자리한, 하심이라는 유력한 가문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아버지 아브드 알라는 그가 태중에 있을 때 죽고, 태어난 지 얼마 안되어 어머니마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고아로 삼촌에게서 양육되었다.⁵⁴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역시 제사장인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탄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사가랴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지만 늙도록 아들이 없었다. 당시 제사장들은 순번을 정해 직무를 담당했다. 어느 날 자기 차례가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다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났고, 그의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⁵⁵

신비하게 각색되기는 해도 누구든 잉태되는 과정은 같다. 구분식 목사나 석가모니나 세례요한이라고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식능력으로 잉태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암수의 교미를 통해 종(種)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잉태와 출산이 이루어지며, 이런 방식으로 생명이 유전된다. 이렇게 육체적 관계를 따라 태어나는 종은 절대로 다른 종이 될 수 없다. 아담의 후손은 수백 대를 지나도 아담의 후손이다. 따라서 여전히 자신들의 조상인 아담이 가지고 있는 반역의 책임을 지고 태어난다. 성경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육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잉태에 있다. 세례 요한은 늙은 아버지 사가랴와 늙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육체적 결합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 육체적 생식능력과 상관 없이, 약속을 따라 잉태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담이 저지른 죄의 책임과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되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따라 태어난 분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여인의 후

⁵⁴ 김정환. 《교실 밖 세계사 여행:마호메트는 상인이자 정치가였다.》. 사계절.

⁵⁵ 눅1:5-80

손이라고 부른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일으킨 반역이 실패하고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였다. 그때 하나님은 뱀과 땅을 저주하시지만,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인의 후손이란, 인간의 생식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 약속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인간의 생식능력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과 똑같은 출산의 과정을 겪으셨으므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성경에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지칭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인간임으로 인간인 아담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다른 짐승이나, 어떤 생명체, 혹은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식능력과 상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지만, 인간의 거드랑이에서 출생했다거나, 태어날 때 오색구름과 온갖 진귀한 향기가 몸을 감쌌다는 등 그런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보통 사람과 같은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에서 치러진 결혼식 파티에서였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의 결혼 잔치가 열렸고, 예수의 가족들은 여기에 참석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만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외국에 나갔을 때 종종 당황하는 것이, 음식을 주문할 때 반드시 음료를 함께 주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음식 주문을 받는 사람이 와인을 할 것인지 혹은 맥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탄산 음료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물을 한 컵 주문한다. 이게 왜 당황스러운

가 하면, 한국에서는 음식을 주문할 때 당연하게 딸려 나오는 것이 물이고 알코올음료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혼식 파티라고 해도 그것은 단지 선택사항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파티를 할 때는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이 와인이다. 포도주가 없으면 파티를 할 수가 없음은 물론이고, 음식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더구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한창 파티가 무르익었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참석한 결혼식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잔치를 준비한 측에서는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이 일을 어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했다. 네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니?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⁵⁶였다. 모두가 “포도주가 떨어지고 어떻게 마련되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예수가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에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호칭하셨다. 여기서 사용한 여자라는 호칭, 귀네^{gunhv}는 일반적인 여자를 뜻한다. 굳이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아줌마, 혹은 여사님쯤 되는 호칭이다. 헬라어에서 어머니는 메테르^{mhvthr}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메테르라 하지 않고, 여사님으로 호칭했다. 나는 처음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예수님이 몹시 취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사님이라고 부른 때가 또 있었다. 그분은 운명하기 직전에 십자가 아래에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다. 그때 어머니를 가리켜 또 여자라고 부르셨다.⁵⁷ 물론 여기서도 귀네^{gunhv}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불량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일까? 자신이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요셉의 생식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간

⁵⁶ 요2:4

⁵⁷ 요19:26

의 반역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음을 믿는다고 함께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생식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체계에서 핵심중에 핵심이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는 종족이 저지른 반역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반역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聖母)로 부르며 숭배하고, 심지어는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가톨릭 신자들이 자주 드리는 묵주기도 중에 성모 마리아를 향한 기도문이 있다.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 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으셨으니, 다른 여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고, 이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처녀로서 잉태되는 그 치명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수락한 위대한 어머니이니, 누구나 존경하고 추앙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문제는 그분에게 신적인 지위와 영광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우선은 그녀 역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다. 마리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잉태되고 태어났다. 따라서 당연하게 아담이 지은 반역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 역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거룩하다는 존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녀는 존귀할지언정 거룩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거룩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지만, 그 후예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줄줄이 출산했다. 그 출산에는 자신의 생식능력과 남편 요셉의 생식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저지른 죄의 책임과 상관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며, 정상적인 출생 과정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제5장

고난을 받으신 예수

뉴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맨해튼섬 입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다. 마찬가지로 에펠탑을 떠올리면 당연히 빠리가 연상 된다.

그런데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십자가이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그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것을 목걸이 펜던트로 만들어 부적(符籙)처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결국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道具)이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식적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 처형이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 혹은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이나, 총을 쏘서 죽이는 총살형은 잔인해 보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숨을 거두는 고통의 시간이 짧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정말 길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면 우선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진다. 그 상태로 숨을 거두는데 짧게는 삼일,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도 넘기기도 한다. 그러니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분이 점차 다 빠져나가고, 폐와 심장이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점차로 제발 자신을 죽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고 한다.

이 세상에 이토록 잔인한 처형 도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 왜 기독교는 이 잔인한 사형 도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게 되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사형(死刑)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고백 중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고백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설이 아닌, 역사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80세인 BC483년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쿠시나가라에서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힌두교 방식으로 火葬(화장)되어 몇 개의 사리를 남겼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AD 632년 메카의 카바신전을 참배하고 메디나로 돌아오던 중 심각한 열병에 걸려 죽었다. 그의 유해는 검소하게 장례를 치러 오늘날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크에 매장되어 있다. 이 둘은 모두 질병으로 병사(病死)했다.

그러나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 받아 처형되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含意)가 있다.

자! 우선 우리의 신앙고백은,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왜 사람 이름이 등장할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이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에게 적의를 품고 저주하라는 의미일까?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신화(神話)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 외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로마의 기록은 역사가 타키투스가 「연대기」에서 네로의 기독교 박해를 설명하면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고 짧게 언급하는 정도밖에 없다.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서기 26년에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의 후임으로 유대 지방에 부임했다. 이전 로마 총독들은 번번이 안정적인 통치에 실패했기에, 유대인에게 강경책을 쓰자는 세야누스의 추천으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임명했다. 당시 로마 총독의 임기는 관례적으로 3년이지만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례적으로 장기 집권을 맡겨, 필라투스는 서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다.

하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나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불명(不明)할 정도로 기록이 희미한 탓에, 기독교에서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라는 설도 있었다. 그러나 1961년 이스라엘 카이사레아에 있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야외극장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이름이 포함된 라틴어 석판이 발견되어 그가 실존 인물임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⁵⁸

이 석판은 극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들 중의 하나에서 계단의 층계참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발견될 당시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돌의 왼쪽 부분이 깎여나간 상태였다. 이 명각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유대의 총독이라고 나온다. 정확히는 다음과 같다.

(DIS AVGVSTI)S TIBERIEVM

⁵⁸ 발견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PO)NTIVS PILATVS

(...PRAEF)ECTVS IVDA(EA)E

(...FECIT D)E(DICAVIT)

괄호 부분은 깎여나간 부분인데,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존엄하고 신성하신 황)제께 티베리에움을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의) 총(독)

(헌)정(했다).

그러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인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의미로서, 석판을 새겨서 야외 극장에 뇌뒀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본디오 빌라도)는 기독교인들이 부른 칭호나 호칭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불린 그의 본명이다. 석판의 글씨가 2000년이 지나도록 컴퓨터 폰트처럼 반듯한 것으로 보아 실력 있는 석공이 새긴 것이 분명한데, 본인이 만든 게 아니면 누가 돈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석판의 발견으로 폰투스 필라투스(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관한 기사는 꾸며내거나 전설로 전해지는 것을 채록(採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다는 것이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체포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참람죄(僭濫罪), 즉 신성 모독죄였다.⁵⁹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돌로 치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역죄로 고발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람죄를 적용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은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⁶⁰라고 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암시하는 자신의 죽음은 어떤 형태일

⁵⁹ 눅21:66-71

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처형이다.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것은 저주와 관련이 있다. 성경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⁶¹ 나무에 달려 죽는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다섯 왕, 즉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⁶²는 기록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인 후에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⁶³고 설명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좀 더 직설적이다. 예수님의 일생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종말과 심판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유월절이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⁶⁴라고 하셨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⁶⁵ 그분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아셨다.⁶⁶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은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이 아니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은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다. 그것도 아무나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중범죄자들은 십자가에 처형했다. 로마의 입장에서 최고의 중범죄(重犯罪)는 무엇이었을

⁶⁰ 요18:32

⁶¹ 신21:23

⁶² 수10:23-27

⁶³ 갈3:13

⁶⁴ 마26:2

⁶⁵ 요3:14

⁶⁶ 마20:19

까? 반란죄이다. 반란은 로마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반란을 일으킨 죄인들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다.

BC73년 로마에 국가적 위기가 닥쳤다.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한 검투사들의 반란이었다. 이 반란은 로마의 정예 군단을 격파하고 2년간이나 지속되었다. 당시 집정관 크라수스와 군사적 천재라고 불렸던 폼페이우스의 의해 겨우 진압되기는 했지만, 6,000명의 포로를 모두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로 로마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역사는 이들을 가리켜 레스테스~~lb~~/sth"라고 했는데, 스파르타쿠스 반란 이후에, 제국(帝國)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란은 잔인하게 진압하고 그 주모자들은 모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총독 관저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고발된 예수의 죄목은 “반란죄”였다.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었고, 예수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유대의 분봉왕 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는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파면 된 후, 프랑스 리옹 지방으로 유배당하고 유대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폰투스 필라투스(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만약 예수라는 이가 유대인의 왕을 주장하고 나섰다면, 이는 반란이고 총독은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빌라도의 심문 결과 예수는 반란군이 아니었으며 반란을 일으킬 여지도 없었다. 그는 단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고발했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조차 예수를 신사적으로 대하라는 충고를 했기 때문에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유대 군중들의 소란이 너무 커서 그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적당하게 채찍질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분노와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그는 군중들에게 유월절 특사와 관련해서 협상안을 제시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총독은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구금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도자인 예수 바라바는 군중들이 모두 알고 있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유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열심당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와 바라바예수

중에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는 반란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중, 특히 군중은 그리 지혜롭지 않다. 군중들 속에는 몇몇 주동자들이 섞여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강력한 선동이 일자 군중들은 모두 동요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다.”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는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위협했다. 그 위협은 헤롯 아겔라오처럼 해임 될 수 있다는 소리였다. 빌라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소리였다. 성경은 민란이라도 일어나려는 분위기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⁷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힘에 압도되어서, 반란의 현행범인 바라바는 석방하고 무죄라고 생각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 그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선언하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지만... 손을 씻는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신앙고백처럼 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 군중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했지만, 총독으로서 사형의 집행을 담당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죄의 내용을 기록한 죄패(罪牌)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이니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두 명의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을 강도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들을 레스테스^{lh/sth}라고 했다. 레스테스가 무엇인가? 앞에서 검투사 반란을 소개하면서 반란군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레스테스라고 주장했다고 했듯이 그들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던 강도들이 아니라 로마에 저항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다.

예수가 반란의 주동자인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혼자가 아니라, 동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반란군의 토벌(討伐)이라는 형식을 갖춘 것이다.

⁶⁷ 마27:15-24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면서 그 강도들을 함께 처벌한 것이 역사적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그 사형 집행이 자신의 포악한 통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유대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상부에 보고 하기 위한 빌라도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행위였다.

물론 예수는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었다. 그의 설교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에서도 그런 선동을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른 사람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 곧 바라바와 그 일당들이 저지른 반역죄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으신 것이다. (물론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처형을 받으셨다)

이쯤에서 열심당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셀롯이라고도 불리던 열심당이란 누구인가? 이방인에 불과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무력 투쟁을 하는 집단이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자 이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항쟁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유대인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마 제국에 대항한 집단이 열심당이다.

열심당의 모델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였는데, 광야 시대에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그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24,000명의 백성이 죽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고,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 즉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 중에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기 위해 자신의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들의 배를 꿰뚫어 살해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⁶⁸

그러니까 열심당의 관점에서 유다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방인 지배자들과 유다의 성결을 더럽힌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많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메시아 왕국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작은 칼을 품고 다니며 로마에 협조적인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따라서 작은 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으로 시카리오라고 불렸다. 열심당원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는데,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주도하는 크고 작은 테러가 유다와 갈릴리에 만연했음은 물론이고,⁶⁹ 바라바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강도, 즉 레스테스들은 바로 그런 이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낙원, 즉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피를 흘려 싸웠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한 사람은 자신의 이 노력이 부질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메시아 왕국, 즉 낙원을 보았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했다.⁷⁰ 그러나 그들 중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절망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했다.⁷¹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반역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의 주모자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 그 십자가 처형은 원래 바라바 라는 테러리스트가 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역죄를 대신함이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다. 아니, 그런 주장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로서 삼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함을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를 창조주라고 스

⁶⁸ 민25:1-9

⁶⁹ 리처드 호슬리, 김준우 옮김, 편집, 《예수와 제국》, 한국 기독교 연구소, 80쪽

⁷⁰ 눅23:42-43

⁷¹ 눅23:39-40

스로 주장한 반역이다. 창조 되어진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창조주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hy<h]a, rv,a} hy<h]a,*”⁷²라는 것이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누군가에 의해 존재 되어 지지 않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창조되지 않은 그 분은 영적인 우주와 물질 우주를 창조하셨다.

창조 되어진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할 수는 없다. 존재의 목적은 오직 창조주만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했다.⁷³ 자신을 창조주의 위치에 두려고 했다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만물의 존재 목적을 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인간은 이 반역을 계속하고 있다. 스스로 존재 목적을 정할 뿐 아니라, 만물이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역의 결과로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게 되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존재 목적으로 정하고, 만물은 그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만물과 투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예배하기도 한다. 이것이 반역의 증거이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동거 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번 일어난 반역을 철회할 수 없다. 주권자는 그 반역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반란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처벌은 사망”⁷⁴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⁷² 출3:14

⁷³ 창3:5-6

⁷⁴ 롬6:23

장사(葬事)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릴 적 내가 답답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그가 무덤에 장사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본체(本體)셨다. 그런데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죽고 또 무덤에 장사 되었을까?

사람이 일으킨 반역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감당해야 한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즉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나, 인간의 관리 아래 있었던 다른 생명체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처벌받을 수 없다. 설혹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수천 마리의 양이나 염소 혹은 소를 죽인다고 해도 인간이 저지른 반역에 대한 처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저지른 반역의 책임을 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만이 사람이 저지른 반역죄의 처벌을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도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는 종족은 모두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설혹 아주 선한 사람이 있었고 그가 죽었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역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 장사 되었다.

기독교 초기에 영(靈)은 선한 것이고 육(肉)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체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집단이 존재했었다. 그들에도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이들을 통칭해서 영지주의(Gnosticism)라고 부른다.

이들은 A.D.1세기에서 약 3세기까지 초대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곧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역사성(歷史性)과 실재를 통째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의

몸을 입어 출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으며,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의 몸은 실재가 아니라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가현설(Docetism)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억지이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하지만 영지주의와 가현설의 위험성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⁷⁵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다⁷⁶ 마지막 아담이란 무슨 뜻일까? 그의 죽음으로 아담이란 종족(種族)이 멸절(滅絶)되었다는 뜻이다. 아담족은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고, 실패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 해야만 한다. 그런데 반역과 상관이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대표로 죽었다. 인간의 반역죄를 대신 짚어지신 그 분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무덤에 장사 되었다.

그가 장사 되신 것은 반역을 일으킨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앙고백에는 “지옥에 내리사 사흘날에 죽은자 가운데로조차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인간의 반역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지옥에 내리셨다는 신앙고백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그분은 지옥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환상 속에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보통의 방법으로 출생하셔서 인간으로 오셨다.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되심으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⁷⁵ 요일4:2-3

⁷⁶ 고전15:45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아담의 혈통과 상관없이, 아담이 저지른 반역죄의 책임과 상관없이, 세상에 오신 인간만이 이 죄를 대신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 혹은 손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심히 곡해하는 것이다.

제6장

부활하신 예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짐짓 무시한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단지 종교적인 관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을까? 누군가 나에게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느냐”고 물으면 나는 분명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도 부활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고,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부활했고,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은 또 죽었다. 그것은 부활과 분명히 다르다. 물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싯달타 고다마 즉 부처가 기원정사(Jetavana-vihāra)에 머물고 있을 때, 외동아들이 죽은 과부가 그를 찾아와 아들이 죽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때 부처는 온 마을을 다니며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전혀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 과부는 몇 날 며칠을 다니며 주변에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부처에게도 돌아왔다. 그때 부처의 생로병사(生老病死)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산스크리트어 마야(māyā), 즉 실체가 아닌 환영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이 왔으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진리를 설파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셨다. 나인성 과부 아들의 죽음이나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죄 때문에 죽었다. 물론 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 즉 누구에게든 손해로 입힌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가리킨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예표에 불과 할 뿐 진정한 부활은 아니다. 부활이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힌두교 계통이나 불교의 밀교 계통에서는 탄트라(Tantra) 사상이 있다. 탄트라는 한자어로 금강(金剛)이라고도 하는데, 단단하여 절대 파괴되지 않는 몸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다. 라마교라고 하는 티벳 불교, 즉 밀교(密敎) 중에는 소위 금강불교(金剛佛敎)를 추구하는 종파가 있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⁷⁷ 그들은 수련에 의해 죽지 않고 늙지 않으며 썩지 않는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⁷⁷ 동양사상 > 동양의 사상 > 일본의 사상 > 불교사상 > 진언종,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동양, 특히 중국과 한국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는 도교 역시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하였는데,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방식의 수련법이다. 도교에서는 인간이 죽는 이유가 세포의 끊임없는 변화로 몸이 늙게 되고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니, 몸의 변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금강석(金剛石), 즉 다이아몬드와 황금(黃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금강석이나 황금을 섭취해 인간의 몸을 바꾸면 결코 쇠(衰)하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봤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황금을 먹을 수는 없는 법이므로,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연금술을 이용하여 마침내 금을 섭취하는 법을 발견했다. 황화수은을 이용해 금을 녹이고 이것과 많은 약재를 섞어 환약(丸藥)으로 만들어 섭취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황금이 인간의 체내에 쌓여 마침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금강불괴(金剛不壞)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단은 상당히 고가(高價)여서 일부 황제나 고위 귀족층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연단을 먹은 사람들은 대체로 요절(夭折)⁷⁸했으며 흉하게 죽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는 수은이었다. 현대 의학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은 독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준다. 중세 이후 근대에서도 영국이나 유럽의 귀부인들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 다량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 수은은 처음에 피부를 희게 만들기도 하고 매끄럽게 하기도 하지만 끝내는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마침내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 물론 인

⁷⁸ 요절(夭折)이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말한다. 나이에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당나라 문인 이선(李善)이 문선(文選)에 단 주석에서 "나이 30에 못미쳐 죽는 것을 요(夭)라고 한다"고 한 것에서 당시는 30세 정도를 기준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례(儀禮)》[3]에 따르면 16~19세에 죽는 것은 장상(長殤), 12~15세는 중상(中殤), 8~11세는 하상(下殤), 8세 미만은 무복지상(無服之殤)으로 불렀다.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재, 편의상 평균 수명의 절반을 못 산 경우까지를 요절이라 보면 선진국 평균 수명이 70대 후반에서 80대 초중반이니 40세 이전에 죽는 경우를 요절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넓게 보면 40대~50대에 죽는 경우도 요절이라 하기도 한다.

간이 아무리 노력 해도 썩을 것은 마침내 썩는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것은 언젠가 썩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가리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⁷⁹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조건이 무엇인가?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이다. 무엇이 썩는가? 생명이 없는 것이 썩는다. 어쨌든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 썩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 들은 썩어가기 시작한다.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썩어질 몸”이라고 한다. 왜 썩어질 몸인가?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는 생령(生靈)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 부터 왔다. 따라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아담을 떠났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었던 아담의 영은 기능적으로 죽었다.⁸⁰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다.⁸¹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을 땅에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다. 왜 죽었을까?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죽을 뿐 아니라, 썩는다. 그런데 썩을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

⁷⁹ 고전15:42

⁸⁰ 영혼 불멸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혼은 기능이 정지되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다.

⁸¹ 엡2:1

다.⁸² 앞에서는 죽은자 가운데라고 했고, 뒤에서는 잠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둘 다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하지만 두 번째 표현을 잠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코이마오^{koimavw}를 쓴 까닭은 예수가 이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예수가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뜻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부활한 예수의 몸과 그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몸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담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수리공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몸을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葬事) 되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아담의 생명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다.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⁸³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이 생명은 영적인 우주가 되었던 물질적인 우주가 되었던 한 번도 존재했던 적이 없는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아담의 범죄와 상관이 없기때문에 영원하며 결코 썩지 않는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부활의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되셨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⁸⁴고 말하는 것이다.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죄의

⁸² 고전15:20

⁸³ 고후5:17

⁸⁴ 롬6:23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죽었고, 썩을 인간의 몸을 대표하여 무덤에 장사 되셨지만, 그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만드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유일하다. 부활(復活)이란, 썩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역시 옛 생명은 썩어지지만, 새 생명은 날로 새로워진다.⁸⁵

제7장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아담의 혈통과 상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분은 정상적인 출산 과정을 통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그의 몸은 언젠가 썩고 부패하여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그분은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일시적으로 부활했다가 다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⁸⁶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분의 몸은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죽어 썩어질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고, 썩어진다는 예표로 땅에 묻히셨다.

⁸⁵ 고후4:16

⁸⁶ 고전15:42

다시 말하면 썩을 것으로 심겨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분은 불과 40여 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이것을 신학적(神學的)인 용어로 승귀(昇貴)라고 하는데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昇天)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셨다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는 왜 승천(昇天)하셨는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따져 보자.

중국에서는 도가(道家)라고 하여 하나의 학문적 분파를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세계관에 근원을 이루는 도교(道敎)에서는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하는데, 즉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이 불로장생의 정점(頂點)은 신이 되어 죽음을 초월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선술(神仙術)이라고 한다.

신선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방법으로 영약(靈藥)을 복용하거나, 곡식은 먹지 않고 솔잎 대추 밤 등을 날로 먹는 벽곡(辟穀)과, 호흡법의 일종인 복기(服氣) 등의 수련을 통하여 육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불로장생(不老長生)의 길을 얻는 것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신선이 된 예는 없으므로, 도가에서 또 한 가지 소개하는 방식이 육신을 버리고 혼백만 빠져나가서 신선이 되는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시해(尸解)라고 하는데, 왕이나 황제를 살해하는 시해(弑害)와는 다르다. 몸은 혼백(魂魄)을 가두어 두던 일종의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껍데기에 불과한 몸을 벗어 놓고 신선(神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교의 전승에 따르면 이 땅에서 시해(尸解)한 사람들로 권청(權淸)·남궁두(南宮斗)·전우치(田禹治)·서경덕(徐敬德)을 비롯하여 소백산인(小白山人)·백령도인(白翎道人)·학가노인(鶴駕老人) 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째튼 그들의 몸은 썩어 소멸되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표현한다. 돌아가셨다고 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은 그 몸과 영혼이 하늘로 가셨다는 뜻이 아니다. 몸은 이곳에 두고 그 영혼만 하늘로 가셨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교의 시해(尸解)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분은 몸은 땅속에 버려두고 영혼만 승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다. 이 설명은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복음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개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몸을 가진 인간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하늘로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는다. 공중부양(空中浮揚)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고, 설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예수는 일시적으로 공중부양의 신기를 보인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⁸⁷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인가? 대기권 밖에 있는 성층권이나 성층권 밖에 있는 다른 우주공간인가? 성경에서 하늘과 관련된 가장 많은 설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우주를 가리킨다.

필자의 책 <통으로 읽는 복음>에서도 설명한 것이지만⁸⁸, 이 우주는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로 구성되어 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에 따르면 이 두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다.⁸⁹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눈에 보이는 우주인 물질 우주에 속하셨다. 그러므로 물질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따라

⁸⁷ 행1:9

⁸⁸ 구본식, 통으로 읽는 복음 PP82, 비전북

⁸⁹ 골1:16

사셨다.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려면 순간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두 다리로 고달프게 걸으셔야 했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으셨다. 그러나 그는 육체로 부활하셨다.

분명히 말하겠다. 그분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다.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승천하신 것일까?

예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물질 우주는 시간(時間)과 공간(空間) 그리고 물질(物質)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 우주는 3차원의 세상이다. 이 3차원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얽매어 있다. 모든 물질은 존재하게 되는 순간, 시간 에너지와 공간 에너지를 끊임없이 사용하며, 그 에너지가 고갈 되면 소멸하게 된다. 타락한 이후에 물질에 불과하게 된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간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소멸하게 되어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령의 잉태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孕胎) 되셨지만, 여인의 출산이라는 보통의 방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을 지니시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에너지를 사용하실 때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피곤함을 겪으셨다. 그리고 그의 몸은 죽어 장사 되셨다. 그러나 그는 썩어서 소멸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난 그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이다.

어찌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

영적인 우주, 즉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영적인 우주라고 부른다. 이 영적인 우주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공간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지만, 천사들이나 영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은 공간의 이동이라는 물리법

칙과 상관 없이 어디든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시간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전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혹시 자신들을 체포하러 올지도 모르는 로마와 제사장들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문을 두드리고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마치 벽을 통과 하듯이 나타나셨다.⁹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를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유령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공간을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드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⁹¹ 그래도 제자들은 설마 하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⁹²

어떤 이들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활만 인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몸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두 번째 아담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 성경은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고 선언한다.⁹³ 마지막 아담이 되셨

⁹⁰ 요20:26

⁹¹ 눅24:38-40

⁹² 눅24:41-43

⁹³ 고전15:45

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담이라는 종족이 예수가 죽음으로 이 우주에서 멸절되었다는 뜻이다. 1992년에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라스트 모히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라스트 모히칸 이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모히칸족 던컨의 죽음으로 모히칸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으므로 아담이라는 종족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한다.⁹⁴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그는 주 후 67년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 후에 참수형(斬首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담에 속한 모든 종족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담에 속한 모든 종족은 그와 함께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은 바울이나 바울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 속한 모든 종족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⁹⁵ 무슨 말일까? 바울의 옛사람, 즉 아담의 생명은 죽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는 것은 자신 안에 새롭게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이다.

결국 그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생명이 없다. 따라서 부패와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될 일만 남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영원히 산다. 새 생명은 어떻게 소유하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⁹⁴ 갈2:20

⁹⁵ 갈2:20

새 생명, 즉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은 이런 것이다. 옛 아담의 종족, 아담의 생명과는 다르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영원히 산다. 따라서 그분은 중력이라는 물리법칙을 뛰어넘어 하늘로 오르실 수 있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활한 우리 몸은 마치 예수님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⁹⁶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은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그분은 왜 하늘로 오르셨을까?

성경을 보면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다. 사도신경에서 사도들 역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고 고백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쉬신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쉬시는 까닭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쉬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쉬신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뜻이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치셨다. 일을 마치셨으므로 하나님에게 올라가 그분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육일간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쉬신 것이다. 이것을 안식(安息)이라고 한다. 안식은 힘이 들어서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치셨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역시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율법 조문들을 다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⁹⁶ 살전4:17

필자의 전작(前作)인<통으로 읽는 복음>에서도 이미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율법을 조문(條文)이라고 오해하지만,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문(條文)이다. 이 두 측면, 두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제사법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를 창조주의 지위로 올리려는 반역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재판을 시작하셨을 때, 뱀은 저주를 받았다. 물론 이 뱀은 단지 Snake가 아니고 옛 뱀, 용,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단어 아라르rr"a는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는 의미이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마귀가 저주(詛呪)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되려고 반란(叛亂)을 일으켰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 우주의 관리자인 인간은 이 반란에 참여했지만, 저주를 받지 않았다. 인간 대신에 인간의 관리하에 있었던 땅이 저주받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는 대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인의 후손이란 아담족의 생식능력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手順)이다. 그러나 당연히 내려야 하는 저주를 내리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e[leo"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라는 진노를 퍼붓는 대신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그분이 마귀의 모든 계략과 모략을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

그것이 무엇일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서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다. 아담이 발가벗겨진 것은 그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시편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었다.⁹⁷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 씌우므로써, 즉 옷을 입힘으로써 그와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을 떠났으며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나게 되니 그를 둘러싸고 있던 영화와 존귀가 떠났다. 이것이 아담이 “발가벗겨졌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발가벗겨진 이유는 아담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움직일 수 없는 강력한 증거이고, 벌거벗은 상태 그대로, 즉 반역자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자신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값은 사망⁹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이다. 반역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 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반역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아담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때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반역의 죄과(罪科)를 지불 하실 때 까지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만 한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자” 라고 선언했지만,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⁹⁹, 그의 심령도 하나님으로 부터 왔기 때문에¹⁰⁰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

⁹⁷ 시8:5.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관을 씌우다’의 히브리어 아타르^{atâr}의 번역으로 둘러싸다,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

⁹⁸ 롬6:23

⁹⁹ 창1:27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짐승을 죽이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의 대가를 지불 해야 하는데, 자신의 목을 잘라서 나갈 수는 없으니 인간 대신에 다른 짐승의 죽음, 즉 희생을 들고나오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으로 상징되는 것이며, 바로 희생 제사, 즉 율법이다.

그 일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다른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희생의 피를 보고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다. 반역을 저지른 것은 아담, 즉 인간이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인간이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대신할 수 없다. 수만의 황소를 드려도, 천천의 양을 희생으로 드린다고 해도,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른 짐승을 희생했다.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었고, 제사장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었다.¹⁰¹

그러나 이제 약속의 아들, 여인의 후손(後孫)인 그 분이 오셨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지만, 여인의 자궁을 통해 보통의 방법으로 출생하셨고, 인간과 똑같이 성장하심으로 인간이 되셨다. 따라서 인간의 반역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인간이 저지른 반역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실 수 있었다. 그분이 반역자를 처벌하는 형틀인 십자가형을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반역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혹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간의 저지른 반역의 대가는 지불 되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¹⁰⁰ 눅12:1

¹⁰¹ 히10:11

따라서 죄의 대가를 지불 하심으로 죽어 장사 되신 그 분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설명한다¹⁰²

예수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제8장

다시 오실 심판자 예수

이방 종교에도 후일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사상이 있다. 불교에서는 언젠가 미래불(未來佛)인 미륵부처가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상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래부터 존

¹⁰² 히10:10-14

재하는 우주의 근원인 법신불(法身佛)이 있는데, 이 법신불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한다. 이 법신불이 인간으로 변화하여 세상에 오신 부처가 있는데, 이를 보신불(報身佛) 혹은 응신불(應身佛)이라고 하며, 그가 바로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이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구제하고 진리를 설파했지만,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래에 다시 오실 부처가 있는데, 그를 미래불(未來佛), 미륵부처라고 한다.

미륵(彌勒)은 현재는 보살(菩薩)¹⁰³인 채, 그의 정토(淨土)¹⁰⁴인 도솔천에서 천인(天人)¹⁰⁵을 위해 설법을 하고 있지만, 석가모니의 예언에 따르면 그 목숨이 4천세(인간 나이로 56억 7천만년)가 되었을 때 인간계(人間界)로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밑에서 성불하고, 그때 비로소 불격(佛格)을 얻어 미륵불(彌勒佛)이 되며 석가모니를 대신하게 된다고 해서 보처(補處)의 보살로 지칭된다. 한국의 사찰 가운데 용화사(龍華寺)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많은데... 대체로 미륵부처를 주불(主佛)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륵경》에는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이 있는데, 《미륵하생경》은 미륵이 이 세상에 나와 세상을 구원한다는 신앙을 담고 있으며, 혁명 사상을 내포하여 중국과 한국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미륵신앙은, 한국에서 웬만한 마을에는 미륵이라 불리는 돌부처가 없는 거의 곳이 없을 정도로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 이유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던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미륵신앙이,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륵보살이 나이 56억 7천만 년이 되었을 때, 고통 속에 있는 중생(衆生)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에도 구세주가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상이 있다. AD632년 6월 8일(이슬람력 11년 3월 13일) 사랑하던 애첩(愛妾) 아이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¹⁰³ 보살(菩薩)은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중생의 구제를 위해 부처되기를 미루고 있는 존재를 말한다.

¹⁰⁴ 정토란 죄나 두려움, 생노병사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즉, 극락을 말한다. 고통스러운 현실 세상 즉 예토(穢土)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¹⁰⁵ 천상에 존재하는 유정(有情)들, 곧 신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

메디나의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문제는 그가 죽으면서 뒤를 이을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는 일개 왕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이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기까지 한다. 하물며 당시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막강한 이슬람 세계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두고 이슬람은 순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졌다.

순니파는 정확하게 말해서, 순나파(아랍어: أهل السنة 순나)는 전 세계 무슬림의 85~9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분파로서 '순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순나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러니까 순나 파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들은 무함마드의 생전에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알라와 무함마드가 그들의 성실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니파는 무슬림의 가르침의 맥을 이어받은 칼리파가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칼리파의 아들 혹은 혈족이라고 해서 지위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는 지위가 혈족에게 세속 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도자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란 연구를 통해 영향력을 얻어 이슬람 율법(샤리아) 또는 이슬람 신학자(칼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순니파에서는 학자들이 종교적, 정치적 리더쉽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최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시아파(아랍어: الشيعة 시아)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의 칼리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며 사위인 알리를 칼리파로 인정하고 혈통을 따라 그 권위와 지위가 계승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순니와 시아 두 종파는 극렬하게 대립하였으며, 지금도 같은 이슬람이지만 서로 원수 대하듯 한다고 보면 된다. 순니파의 대표는 메카를 중심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고,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화평할 수가 없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간의 전쟁은 순니파인 사우디와 시아파인 이란의 전쟁이라고 보아도 무관하다. 왜냐하면 시아파인 이란이 같은 시아파인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서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에 대한 설명은 이쯤하고, 이슬람에서 다시 오실 구원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슬람은 순니와 시아 두 종파(宗派)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했고, 이 둘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시아파의 이맘들은 대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시아파 내에 반대파들이나 혹은 순니파의 공작에 의해 암살당했는데, 제11대 이맘 하산 알아스카리가 아바스 왕조와의 불화로 인해 874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채 바그다드의 감옥에서 사망했다. 부친의 죽음으로 열두 번째 이맘인 무함마드 알 마흐디는 불과 다섯 살의 나이에 이맘이 되었으나, 즉위 직후 자취를 감추었다.

시아파에서는 그가 신의 뜻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사마라에 있는 모스크 지하 동굴에 숨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후 940년까지 나이브(Naib)라고 불리는 네 명의 대리인에게만 모습을 보이며, 시아파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전해진다. 이때를 소(小) 은폐기라고 부르는데, 아바스 왕조의 시아파 박해가 극심해진 94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대(大) 은폐기'로 부른다. 12이맘파에서는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언젠가는 마흐디(메시아)가 되어 돌아와 세상을 구원하여 진정한 이슬람교를 실현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12대 이맘인 그를 '무함마드 알마흐디' 또는 '무함마드 알문타자르(Muntajar, 기다려지는 이)'로 부른다.¹⁰⁶ 지금도 사마라 모스크에 닫혀진 문 앞에는 돌아올 이맘을 기다리며 명상과 기도를 올리는 신도들이 끊이지를 않는다.

알 마흐디의 재림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는 희망적인 교리는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이슬람 혁명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1881년 수단의 무하마드 아마드가, 이집트의 지배에 저항하여 독립과 자유, 이슬람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마흐디 운동을 일으켜 1898년까지 실제 마흐디 국가를 존속시켰던 사례가 있다. 이들은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란의 국교이기도 하다.

힌두교는 종말이나 심판이 없다. 힌두교에서 우주의 창시자는 브라흐마이다. 그러나 시바가 낡은 우주를 파괴하면 새 우주가 만들어진다. 그 우주를 유지하는 신이 비슈누이다. 계절이 변화하듯

¹⁰⁶ 순니 이슬람 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도래한 이후 마흐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 적그리스도를 제거할 것이라 믿는다.

우주 역시 변화하며 소멸과 탄생을 반복한다. 낡은 우주가 소멸되어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힌두교의 세계관이다. 하지만 이 모든것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간의 순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힌두교에서는 종말론이라든지 혹은 구세주 사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이방 종교의 메시아는 미래에 나타날 신이라는 입장은 같지만, 불교의 메시아 즉 미륵부처는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났던 적이 없는 부처이고, 열두 번째 이맘은 사라졌지만, 언젠가 다시 올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방 종교의 메시아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다.

구원자인가 심판자인가, 하는 점은 성경과 이방 종교를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미륵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는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고 전해진다. 숨었던 무하마드 알마흐디가 다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진정한 무슬림의 세상을 세우고 자신을 따르는 무슬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난과 질병,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살펴보면 그가 다시 오시는 이유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시 요약하면 그는 구원자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

이방의 메시아들은 구원자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審判)의 주(主)로 오신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왜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까? 구원은 그의 초림으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반역을 저지른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고, 인간의 생식능력이 아니라, 원죄의 책임과 상관없는 방식,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나 그분은 보통의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출생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따라서 인간이 저지른 반역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으므로 반역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죽어 장사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을 창조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 즉 그 안에 있으며 그를 구세주로 모시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은 완성되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 그가 오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하늘로 가신 예수는 알 마흐디 처럼 비밀리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뿐만아니라,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는 순교 직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¹⁰⁷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한다.¹⁰⁸ 앉으셨다는 것은 일을 끝마치고 쉬신다는 뜻이다. 하지만 스테반이 복음을 위해 순교할 때 그리스도는 무관심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서셨다.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장차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온다는 미륵부처나 알마흐디는 지금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그들의 교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인간의 구원이나 고통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인간의 고통과 구원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할 때까지 참으신다.¹⁰⁹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끝 없이 반역(反逆)을 계속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초림(初臨)으로부터 이천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재림(再

¹⁰⁷ 행7:55-56

¹⁰⁸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10:12-14)

¹⁰⁹ 벧후3:9

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그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¹¹⁰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망진창 뒤죽박죽이라는 뜻일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원(永遠)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이란, 시간(時間)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방 종교나 철학은 시간이 본래부터 존재했다고 전제(前提)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시간은 창조되었다. 언제 창조되었을까? 물질 우주가 창조될 때 시간 역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은 물질 우주의 창조에 관한 기사이다.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yhi=la> ar:B; tyviarEB[] 우리말로 읽으면 “바레쉬트 바라 엘로힘”이다. 여기서 바레쉬트 할 때 “바”는 어떤 문장을 이끄는 전치사이다. 그래서 전치사를 빼고 읽으면 레쉬트 바라는 되는데, 바라는 “창조하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레쉬트는 “처음 혹은, 시작”이라고 이해된다. 그와 동시에 레쉬트는 히브리적 용법으로 “시간이 시작될 그때”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시간은 영적인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 우주에만 존재한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존재 하신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靈)이시다. 그러므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계신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면, 그 분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이다.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의 길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작된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물리법칙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時間)도 언젠가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종말론적(終末論的) 시간관(時間觀)이라고 부르는데, 이 종말론적 시간관은 기독교 특유의 시간관으로서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힌두교나 불교적인 개념으로 시간은 둥근 원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서 세계관

¹¹⁰ 벧후3:8

이나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시간은 일정한 시점, 즉 출발점이 있고, 마침내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시간이 끝나는 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부른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는 시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간이 이어지는 생명체는 없다. 이렇게 시간이 종료되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다. 우리 중에 주변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까닭이 무엇인지 필자는 정말 모르겠다.

거듭 말하지만, 태초에 시작된 시간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마지막 심판 때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 하기 위해서이다.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¹¹¹ 공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텅 비어있다고 착각하지만, 공간은 산소와 수소 질소 등 수 많은 원자들로 가득하다. 공간은 영원히 존재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공간 역시 물질들이 함께 사라질 때가 있다. 존재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던 공창, 즉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가?

공간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지고 더 이상 공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물질 역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부른다. 그 종말 때에는 죽음과 음부도 함께 불 못에 던져짐으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모든 것, 모든 반역의 흔적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은 새 하늘, 즉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땅, 즉 새로운 물질들을 창조하신다. ¹¹²

그리스 철학은 우주를 구성하는 근원이 무엇일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우주의 근원을 아르케^{ajrch}라고 했는데, 인간은 오랫동안 지성을 총동원해서 이 아르케를 찾는데 몰두하면서 물,

¹¹¹ 벧후3:10-12

¹¹² 계20:12-14

흙, 불, 원자 등등을 아르케라고 주장 했다.¹¹³ 그러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르케는 바로 로고스 **logos**이며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며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로고스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¹¹⁴고 설명한다.” 결국 이 세상, 즉 공간과 물질로 표현되는 물질 우주와 영적인 우주는 로고스이신 그분에 의해 존재 되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소멸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을 종말, 혹은 심판이라고 부른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망(死亡)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모든 물질은, 시간 에너지와 공간 에너지를 끊임없이 사용해야 하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나면, 물질은 해체와 소멸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물론 각자에게 주어진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빨리 어떤 것은 더 천천히 소멸 된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물질은 마침내 소멸 된다는 것은 일종의 법칙이다.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두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만물(萬物)은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식물의 줄기가 말라 죽으면 그 씨나 뿌리를 통해 생명이 보전되고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다. 동물 역시 후손을 통해 생명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종족(種族)을 번식시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숲 사자들은 암사자와의 교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운다. 영양이나 물소들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은 화수분을 위해 꿀벌이나 나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니, 최대한 많은 꿀을 생산하고 색깔과 모양을 아름답게 한다. 그래야만 곤충들이 찾아오고 자기 몸에 있는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주어 수분(受粉)이 되면서 생명을 유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적

¹¹³ 탈레스는 물, 헤라클레토스는 불, 아낙시만드로스는 원자를 아르케라고 하였다.

¹¹⁴ 요1:1-3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하다.

유가(儒家)적 영향을 깊게 받은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은 가르치고 키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개인으로 내 생명은 짧다. 인생이래야 100년도 안 되지만, 후손들을 통해 유전자가 전해지고, 사후 세계에서도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祭祀)라는 방식을 통해 혼령(魂靈)이 후손들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집안에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저주이며 그런 경우에, 같은 유전자를 지닌 친족 중에 양자를 들이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집안의 대를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자신의 생명을 끊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목숨을 끊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편안해지거나 혹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짐짓 무시하거나 피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며, 이방 종교들도 사후 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티벳 불교 등 북방불교도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49재(齋)를 한다. 49재란,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7일마다 삶의 결과에 대한 재판을 받는데, 일곱째 주, 즉 사십구일 짜 되는 날은 지옥을 주관하는 염라대왕에게 각자 전생에서 쌓은 업(業)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고 믿는다. 이 마지막 재판에서 다음 세상에 무엇으로 태어나게 될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어떤 이는 벌레로 어떤 사람은 소 말 같은 가축으로, 어떤 이는 개 고양이 등으로 태어나지만. 또 다음 생애에서는 삶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형태로 태어날 수 있으니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그러니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후 재판을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것을 명복(冥福)이라고 한다. 물론 명복이 좋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집안에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 죽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음 기회가 있다는 이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숨기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성경의 개념은 이와 전혀 다르다.

성경에서도 분명 다음 세상이 존재한다. 죽음으로 모든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존재하는데... 다음 세상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혹은 지옥에서의 삶이며,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으로도 모든 것이 소멸되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불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다.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널리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재판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독특한 가르침이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착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며 다음 단계의 시작이다.

인생은 세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모태에서의 10개월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태에서 10개월의 성장 기간을 거쳐서 이 세상으로 온다.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모태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니, 슬픔과 두려움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 모태에서 오랜 기간 머물거나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 적당한 기간이 되고, 다음 단계로 나갈 만큼 몸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다음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간혹 위대한 왕의 탄생 설화에서는 그가 모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알에서 태어났다는 등... 이상한 전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태에서 태어나는 사람만 인간이고, 알에서 태어나면 조류(鳥類) 이거나 파충류에 불과하다. 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라 겨드랑이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하는 설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석가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존재일 것이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는 불교의 교리 자체가 깨어진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고 자라서 때가 되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출생이라고 부른다. 그 기간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10개월이다. 태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였으니 상당히 긴 시간이었겠지만, 약 80년을 살아야 하는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곳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인생으로서의 80년 역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보다도 짧다.

아무튼 약간씩의 시간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대략 10개월이면 다음 단계인 인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인생을 살 때는 모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넓게 살았느냐 평안하고 화려했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는 방법 자체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태아 시절에는 생존하기 위해 코로 호흡하지 않고, 입으로 음식을 먹지도 않는다. 그 모든 것은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공급된다.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도 없다. 먹고 싸는 것 자체가 인생이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다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태아가 아니라 사람이 된다. 그때부터를 인생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태아로 지낼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선 모태에서의 모든 기억이 지워지고, 코로 호흡하여 산소를 마시는 방법, 입으로 먹는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법 등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몫을 다하기 위해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태아 시절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많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이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70년이고 건강하면 80년¹¹⁵이지만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정말 인생은 짧다.

¹¹⁵ 시90:10

70년을 살든, 80년 혹은 그 이상을 살든,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 그러나 나(我)라는 존재는 소멸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힌두나 불교에서는 아뜨만(Ātman) 즉 나(我)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열반적정(涅槃寂靜)이라하여 모든 것을 불태우는 장례 예법(火葬)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 하지만, 몸이 소멸 된다고 해서 나(我), 즉 아뜨만(Ātman) 자체가 소멸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인생으로서의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다.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되면, 태아(胎兒)와 인생(人生)이 존재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듯이 인생과 다음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다르다. 우선 코로 호흡함으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생존하지 않으며, 입으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공간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를 끊임 없이 소모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음 세상에서 인간은 더 이상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일을 통해 쾌락을 얻을 필요도 없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¹¹⁶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면 마치 천사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며 이 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 세상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며 하나는 심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다른 하나는 지극한 기쁨이 영속되는 곳이다.

우리가 70, 혹은 80년을 살고 다음 세상으로 가면 분명히 둘 중한 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어디 머물게 될지 확신할 수 있을까?

심판의 기준

¹¹⁶ 마22:30

힌두교나 불교의 경전에는 지옥이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으로 살았을 때의 업보에 따라 지옥도(地獄道) · 아귀도(餓鬼道) · 축생도(畜生道) · 아수라도(阿修羅道) · 인간도(人間道) · 천상도(天上道)의 6도(六道) 중 하나의 세계에 윤회한다고 믿는다.¹¹⁷

그러나 티벳 불교 경전인 “사자(死者)의 서(書)”에 따르면 인간의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의 생각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며, 생명은 반드시 환생하는데 자궁으로 태어나는 것과, 초자연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¹¹⁸고 가르칠 뿐, 죄에 대한 심판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불교에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불교 경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에 따라 사후에 여러 등급의 지옥(地獄)에서 벌을 받게 된다. 지옥의 등급은 열여섯이며, 여덟 개의 뜨거운 지옥과 여덟 개의 추운 지옥이 있는데, 이것을 팔열팔한지옥(八熱八寒地獄)이라고 한다. 이용범 교수의 글에 따르면¹¹⁹ 팔열지옥(八熱地獄)과 팔한지옥(八寒地獄)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팔열지옥이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등활지옥이다.

등활지옥(等活地獄, 산스크리트어: Sañjīva 산지바)은 남섬부주 아래 1천 유순¹²⁰이 되는 깊이

¹¹⁷ "육도(六道): 도(道)는 상태·세계를 뜻함. 중생이 저지른 행위에 따라 받는다고 하는 생존 상태, 또는 미혹한 중생의 심리 상태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형상화한 것. 중생이 생각에 따라 머물게 되는 여섯 가지 세계.

- (1) 지옥도(地獄道). 수미산의 사방에 있는 네 대륙의 하나인 남쪽의 섬부주(瞻部洲) 밑에 있다고 하며, 뜨거운 불길로 형벌을 받는 팔열지옥(八熱地獄)과 혹독한 추위로 형벌을 받는 팔한지옥(八寒地獄)으로 크게 나뉜다.
- (2) 아귀도(餓鬼道). 재물에 인색하거나 음식에 욕심이 많거나 남을 시기·질투하는 자가 죽어서 가게 된다는 곳으로, 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함. 섬부주(瞻部洲) 밑과 인도(人道)와 천도(天道)에 있다고 함.
- (3) 축생도(畜生道). 온갖 동물들의 세계.
- (4)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과 축생의 중간에 위치한 세계로, 수미산과 지장산 사이의 바다 밑에 있다고 함.
- (5) 인도(人道). 수미산 동쪽에 있는 승신주(勝身洲), 남쪽에 있는 섬부주(瞻部洲), 서쪽에 있는 우화주(牛貨洲), 북쪽에 있는 구로주(俱盧洲)의 네 대륙을 말함.
- (6) 천도(天道). 신(神)들의 세계라는 뜻으로,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왕천(四王天)에서 무색계의 유정천(有頂天)까지를 말함. "

¹¹⁸ 파드마 삼바바. 티벳 사자의 서.P440

¹¹⁹ 이용범, 꽃을 드니 미소 짓네, 바움, 2007, PP63-64

¹²⁰ 유순(由旬)은 고대 인도의 거리 단위 요자나(yojana)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다. 유순(由旬) 외에도 유순

있다는 지옥이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殺人罪)를 지은 죄인이 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살생한 횟수를 상, 중, 하로 나누어 그에 따른 괴로움을 받게 된다. 똥오줌에 빠진 자는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속에 우글거리는 벌레가 온몸을 파먹는다. 또한 이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은 서로 핏귀고 찢으며 옥졸들도 쇠몽둥이를 가지고 죄인을 때려 부수고 칼로 살을 찢는 형벌을 내린다. 또한 칼날로 이루어진 무성한 숲을 지나면서 온몸의 살점이 파헤쳐지고 베어지게 된다. 죄인이 죽게 되면 금방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게 되어 같은 형벌을 거듭 받게 되며, 또는 옥졸들이 쇠갈퀴로 땅을 두드리거나 공중에서 살아나라 외치게 되면 죽었던 죄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형벌을 거듭 받게 된다.

다음은 흑승지옥인데, 흑승지옥(黑繩地獄, 산스크리트어: Kālasūtra 칼라수트라)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악한 의견을 설법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이가 떨어지는 지옥이다. 죄인이 이 지옥에 들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온몸을 뜨거운 검은 쇠줄로 얹어매고 뜨겁게 달구어진 도끼, 톱, 칼 등으로 몸을 베고 끊어내는 형벌을 받게 되고 험한 언덕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풀처럼 무성히 솟아있는 뜨거운 땅으로 떨어져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한다. 이 지옥 중생들은 수명이 1천 세이며, 그 1주야는 '도리천'의 1천 세나 되고, 도리천의 1주야는 인간의 100년이라고 하니, 어쩌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이다.

그 다음은 종합지옥(衆舍地獄, 산스크리트어: Saṃghāta 삼가타)으로서 살인, 도둑질, 사악한 음행을 한 죄인이 떨어지는 지옥이다. 이 지옥은 죄인을 모아 두 대철위산(大鐵熾山), 즉 쇠로 만들어진 커다란 산 사이에 끼워 넣어서는 두 산이 합쳐지도록 하여 눌러 죽게 하며, 또 큰 쇠 구유 속에 넣어 눌러 찌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다. 또한 철 구유에는 구리가 녹은 물이 벌겍게

(俞旬), 유선나(踰繕那, 愈善那), 유연(由延) 등등 여러 가지 한자 음차가 병용되었지만, 한자 문화권에서는 유순(由旬)이란 번역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유순은 성왕(聖王)이 하루 동안 행군할 수 있는 거리인데, 한자 문화권 불교의 문헌에서는 80리 대유순, 60리 중유순, 40리 소유순 등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에서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통용된 요자나의 길이가 달랐기 때문에 현장 등 중국 승려가 대/중/소를 붙여서 구분한 것이다. 고대 인도에선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자나가 현대의 도량형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고대 인도에서 통용된 가장 보편적인 요자나를 현대의 도량형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보려는 학자들은 여럿 있었다. 학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매우 달라서 작게는 4 km, 크게는 23 km라고 보는 실마저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대체로 13 km를 전후한다고 추정하였다.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곳을 한량없이 떠돌아다녀야 한다.

규환지옥도 있는데, 규환지옥(叫喚地獄, 산스크리트어: Raurava 라우라바)은 누갈(樓葛)이라 음역하고 '제곡(啼哭), 호규(號叫)'라 번역한다. 살생, 도둑질, 음행, 술 먹는 죄를 범한 이가 들어가는 지옥이다.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은 물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 가기도 하고, 옥졸이 철퇴로 입을 찢은 다음, 펄펄 끓어 불타는 구리물(銅汁)을 마시게 하고, 빨갭게 달군 쇠덩어리를 먹여 오장육부를 태워버린다.

비슷하지만, 대규환지옥도 있다. 대규환지옥(大叫喚地獄, 산스크리트어: Mahāraurava 마하라우라바)은 규환지옥에 떨어지는 중생과 같은 죄를 지은 이가 떨어지는 지옥이며,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은 위 규환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주로 살인(殺人), 도둑질(竊盜), 음행(淫行), 과음(過飲), 악행만족(惡行滿足), 망어만족(妄語滿足)을 범한 이가 가게 되는 지옥으로 죄인의 혀를 길게 잡아 빼어 입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 없도록 한 다음에 그 혀바닥에다가 펄펄 끓는 구리 쇠물을 붓거나 철퇴로 짓이기고 가루를 낸다. 그 고통스럽기가 10배가 된다고 한다. 이 지옥 중생의 수명은 8천 세인데, 인간의 8백 세가 '화락천(化樂天)'의 1일 1야(夜)와 같고, '화락천'의 8천 세가 이 지옥의 1일 1야와 같다.

그런가 하면, 초열지옥도 있다. 초열지옥(焦熱地獄, 산스크리트어: Tapana 타파나)은 '살생, 투도(偷盜. 도둑질), 사음(邪淫. 음란한 행위) 음주(飲酒. 술에 취하는 것), 망어(妄語. 어리석은 말, 욕설)'를 범한 이가 떨어지는 지옥이다.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은 맹렬하게 불타는 쇠로 만들어진 성(鐵城), 쇠로 만들어진 집(鐵室), 쇠로 만들어진 다락(鐵樓) 속에 들어가 가죽과 살이 타는 고통을 받는다. 또한 뜨거운 철판 위에 누이고 벌겋게 달구어진 철봉으로 치며, 큰 석쇠 위에 올려놓고 뜨거운 불로 지지며 또 큰 쇠꼬챙이로 아래로부터 몸을 꿰어 굽는 등의 형벌을 거듭 받는다.

초열지옥과 비슷한 대초열지옥이 있는데, 대초열지옥(大焦熱地獄, 산스크리트어: Pratāpana 프라타파나)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사견으로 남을 속이고, 거듭해서 착한 사람을 더

럽히는 등의 죄를 범한 이가 떨어지는 지옥이다.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은 그 가운데에 있는 큰 불구덩이가 있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양쪽에는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커다란 화산이 있다. 옥졸이 죄인을 잡아다 쇠꼬챙이에 꿰어 불구덩이의 사나운 불길 속으로 넣어 집어넣으면, 죄인의 몸이 익어 터지고 용암이 흘러들어 온몸이 불타서 재가 되어 없어지는 고통이 극심하나 그 죄가 다 소멸되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 지옥을 면하더라도 다시 16 소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지옥 중생의 수명은 1만 6천 세, 인간의 1천 6백 세가 '타화천(他化天)'의 1주야가 되고, 타화천의 1만 6천 세가 이 지옥의 1주야이니 계산 불가능한 긴 시간이다.

성철이라는 승려가 죽으면서 자신이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는데...** 아비지옥(阿鼻地獄, 산스크리트어: Avīci 아비치)은 남섬부주 아래 2만 유순인 깊이에 있는 지옥인데, 괴로움받는 일이 순간도 쉬지 않고 끝임이 없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무간지옥(無間地獄), 혹은 아비지옥(阿鼻地獄)이라고도 한다.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에게는 필파라침(必波羅鍼)이라는 악풍(惡風)이 있는데 온몸을 건조 시키고 피를 말려 버린다. 또 옥졸이 몸을 붙잡고 가죽을 벗기며, 그 벗겨낸 가죽으로 죄인의 몸을 묶어 불 수레에 싣고 험한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에 던져 넣어 몸을 태우고, 야차(夜叉)들이 큰 쇠 창을 달구어 죄인의 몸을 꿰거나 입, 코, 배 등을 꿰어 공중에 던진다고 한다. 또는 쇠 매(鐵鷹)가 죄인의 눈을 파먹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다고 하며, '흑승, 등활지옥'이나 마찬가지로 16 별처(別處)가 있다.

이 팔열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 혹은 불 못이 연상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몹시 추운 팔한지옥(八寒地獄)도 있다.

팔한지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부타지옥(阿浮陀地獄, 산스크리트어: arbuda 아르부다)에서는 추워서 천연두가 생기고 몸이 붓는다.

니라부타지옥(尼剌婆陀地獄, 산스크리트어: nirabuda 니라부다)에서는 부스럼이 생기고 온몸이 부어서 터지는 문둥병이 생긴다.

알찰타지옥(頻嘶陀地獄, 산스크리트어: atata 아타타)에서는 추워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 혀끝만 움직인다.

학학파지옥(郝郝婆地獄, 산스크리트어: hahava 하하바)에서는 입을 움직이지 못해 목구멍에서 괴상한 소리가 난다.

호호파지옥(虎虎婆地獄, 산스크리트어: huhuva 후후바)에서는 입술 끝만 움직이며 신음을 낸다.

울발라지옥(唵鉢羅地獄, 산스크리트어: utpala 우트팔라)에서는 추위 때문에 온몸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발특마지옥(鉢特摩地獄, 산스크리트어: padma 파드마)에서는 추위 때문에 온몸이 붉게 물든다.

마하발특마지옥(摩訶鉢特摩地獄, 산스크리트어: mahapadma 마하파드마)은 파드마 지옥보다 더욱 춥고 온몸이 더욱 붉게 물들며 피부가 연꽃 모양으로 터진다.

팔열팔한지옥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가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자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팔열팔한지옥은 최종단계의 지옥이며 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단계 단계마다 지옥이 구비 되어 있어서 죽은 이들은 여러 단계의 지옥들을 거쳐서 극심한 지옥인 팔한팔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힌두교에서는 사후의 사람에게 끔찍한 고문이 행해지는 곳으로 전해지는 일종의 지옥인 <나라카>가 있다. 산스크리트어 나라카(naraka)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쓴 불교 용어가 나락(奈落)이며 이슬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슬람교의 지옥을 "네라카(Neraka)"라고 하니 인간이 가진 상상력의 한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힌두교나 불교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옥의 특징은, 죽은 사람이 재판받고 고통을 당하는 장소이며, 재판의 기준은 인간으로 살았을 동안의 행적이다. 불교식으로는 살아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상도(天上道)에서 신선과 비슷하게 태어날 것이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도(地獄道)나 아귀도(餓鬼道) 혹은 축생도(畜生道) 같은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고 보면 불교에서 지옥이란 지옥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기는 한데 불교 경

전을 자세히 살펴봐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고백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심판은 죽은 다음에만 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이는 천국으로 가지만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은 몹시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천국은 안락한 곳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몹시 큰 부자여서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다. 그러나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그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심한 영양실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피부병에 시달리면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그렇듯이 둘 다 죽었다. 불행하게도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보였다. 그가 별로 놀라지 않은 것을 보니 자신이 지옥에 있고,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이라도 달라고 했다.¹²¹ 그의 생각에는 나사로가 그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았으니 물 한 방울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마저 거절당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부자의 몸은 죽어 장사 되어¹²² 무덤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지옥으로 간 것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 중의 하나가 목마름이었다. 어느 정도로 목마름이 심했느냐 하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간청할 정도였다.

몸이 없는데... 목마름을 느낄 수 있을까?

¹²¹ 눅16:24

¹²² 눅16:22

영혼의 목마름이란 문학적 표현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몸이 없는 상태에서 목마름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있는 음부는 고통스러운 장소이다. 다시 말하면 목마름이란 절실한 고통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 하데스a{/dh}"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지옥”인 게헨나gevenna와는 다르다. 천주교에서는 이 하데스와 관련하여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사람은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 혹은 천국(아브라함의 품)에 머문다.

조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톨릭에는 연옥(煉獄)의 교리가 있다.

연옥이란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큰 죄를 지은 일은 없지만, 혹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머물며 불로 정화(淨化)를 받는 장소이다. 이 불 정화(淨化)는 상당히 고통스러우며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땅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연옥에서의 고통이 더 크다.”¹²³. 그런가 하면 그레고리오는 미미한 죄까지 모두 태워 없애는 정화의 불이 있다고 말했다.¹²⁴ 오리게네스는 영혼을 정화 시키는 데 필요한 불에 대해 언급했으며¹²⁵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도 정화의 불이 존재한다는 글을 썼다.¹²⁶

¹²³ Catholic Encyclopedia on Purgatory

¹²⁴ "각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 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전에는 정결케 하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거되어야 할 몇 가지 사소한 결점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2)고 했습니까? 이 진술에서 우리는 어떤 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만일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른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경미한 범법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¹²⁵ 너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만 쌓은 것이 아니요(고전 3:12) 나무와 풀과 짚도 있을 것인데,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때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당신은 나무와 건초와 그루터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럽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장애 때문에 당신은 밖에 남아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벼운 물질을 태울 불에 맡겨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깨닫는 자에게 정결케 하는 불이라 일컬느니라. 그러나 이 불은 피조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이 스스로 지은 것, 곧 나무와 풀과 그루터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불이 우리 범죄의 나무를 멸하고 우리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Origen, Homilies on Jeremias, PG 13:445, 448 (A.D. 244).

¹²⁶ 그가 육체를 버리고 미덕과 악덕의 차이를 알게 되면, 정화하는 불이 그의 영혼에 감염된 얼룩을 깨끗하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동일한 불이 물질의 부패와 악에 대한 성향을 제거할 것입니다." Gregory of Nyssa, Sermon on the Dead, PG 13:445,448 (ante

필자는 연옥의 교리를 지지 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인간의 영혼이 음부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은 동의한다.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사후(死後)에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우선 죄 용서를 받고 반역의 흔적을 지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그곳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죽어 흠으로 돌아간 그들의 육체가 모두 부활하고, 또 당시에 살아 있는 자들의 몸도 모조리 변화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상태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 그들 모두 공중에서 주님과 재회하게 된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부활하여 휴거 하게 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¹²⁷. 죽어 있던 몸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재회하게 된 사람들은 그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며 그리스도와 영원한 왕 노릇을 하게 된다. 여기서 왕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누구에게든 지배받지 않고 다른 피조물들 즉,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¹²⁸.

타락 이전에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안전장치로 만들어 준 선악과¹²⁹를 먹고 난 후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면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¹³⁰.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된 인간은 다시 완벽하게 만물에 대한 관리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시라, 천국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아무튼

A.D. 394).

¹²⁷ 계20:6

¹²⁸ 여기서 만물이라고 표현한 nature(라틴어 natura)는 자연이라고 번역하지만, 자연이란 스스로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확(的確)한 번역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만물이라고 번역한다.

¹²⁹ 구본식 저, 통으로 읽는 복음. 2017. 비전북 PP28-31

¹³⁰ 창3:19

반역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이 땅과 하늘을 완전하게 파괴¹³¹하고 새 하늘과 새 땅¹³²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러면 예수께서 마련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신이 만든 의를 의지하거나 여전히 악행을 계속한 사람들은 어찌 되는가? 그들은 죽어 고통스러운 장소인 지옥으로 간다. 이 지옥을 음부 즉, 하데스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을 일컫는 불 못과는 구별되는 장소이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다. 하지만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영혼이다. 그의 육체는 죽어 무덤에 장사 되고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딜 만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에 따르면 최후의 재판이 있다. 이 재판은 하얀 의자에 앉으신 분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백보좌(白寶座) 심판으로 일컬어진다.

이 재판은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죽어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이던지 혹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던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성경에 따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다.¹³³ 다시 말하면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육체를 가지고 재판에 참여한다.

심판관 앞에는 두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복수(複數)로 표현되는 책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단수(單數)로 표현되는 책이다. 사도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단수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생명책이다.¹³⁴ 몹시 흥미로운 사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불 못 곧 둘째 사

¹³¹ 겠전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¹³² 겠21:1, 2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¹³³ 겠20:13

¹³⁴ 겠20:11,15

망에 던져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불 못에 던져지는 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이다.¹³⁵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책들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같다는 것이다.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살아오면서 저지른 죄악들, 혹은 인생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판결은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모조리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선고된다.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한 죄나 실수에 대한 재판이라면, 사람마다 판결이 달라야 한다. 불교식으로 지옥에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야 하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단계의 불 못을 가리키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재판의 결과는 누구나 동일하게 불 못뿐이다.

그리고 그 재판에 참고하는 것은 책들에 기록된 그 사람의 행위 한 가지뿐이다.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그 책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면 형량은 각자 다르게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서 나오는 형량은 모두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기소(起訴) 내용이 같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재판이 최후 심판이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설명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반역죄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반역이고, 이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을 뿐이다.¹³⁶

마지막 재판은 반역자들의 심판이다. 어떤 사람이 비교적 선하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악하게 살았던 상관 없다. 문제는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는지가 문제의 전부이다.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의 행위란 반란군의 일원인가 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심판의 책은 반란군의 명부라고 보면 된다. 반란군의 명부에 내 이름이 있으면 불 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¹³⁵ 계20:12

¹³⁶ 롬6:23

어떻게 보면 너무 무자비한 것 같지만, 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요한은 시간 밖으로 불러 나가서¹³⁷ 시간 안에서 펼쳐지는 심판을 보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불 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¹³⁸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불 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아니, 심판 자체를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심판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반란에 참여했고 당연히 반란군의 명부인 심판의 책들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즉 그 복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은 반란군의 명부에서 삭제되고 동시에 생명책에 기록된다.

누누이 설명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반란죄의 대가는 지불되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역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¹³⁹고 설명한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 본래는 반역자로서 반란군에 속해 있었는데, 그 죄의 몸은 그때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명부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상관이 없는 새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망의 책, 심판의 책에서는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아담의 종족을 대신하여 십자

¹³⁷ 계4:1

¹³⁸ 계20:15

¹³⁹ 롬6:3

가에 죽으심으로 반란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이름은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졌다.¹⁴⁰

제9장

성령의 임재와 역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십일 켜가 되는 날은 유대력으로 오순절이었다. 유월절을 지내고 첫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¹⁴¹

첫 열매를 드리고 일곱 주가 지나면 칠칠절 혹은 오순절(五巡節)이라고 하는데, 유대교에서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로서 그해 첫 농산물을 바치는 날이었다. 유다 지역은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 존재하는데... 여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乾期)인데 반해 겨울은 풍부한 비가 내리는 우기(雨期)이다. 우기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인데 11월 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3월 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한다.

¹⁴⁰ 요5:24

¹⁴¹ 고전15:20, 23; 약1:18

한겨울에는 가끔 폭우가 내리기도 하는데, 이를 겨울비라고 한다. 그러니 유대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겨울비가 내리는 것이다. 이른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밀과 보리 등 곡물을 심고, 겨울이 지나고 늦은 비가 내려 곡식이 익으면 보리와 밀을 거두어 타작한다. 보리와 밀은 유대 땅에서 필수적인 곡물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는 것이 농사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논 곡식과 밭곡식을 함께 거두어 드리지만, 유대 땅에서는 이른 여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가을이 되면 감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고,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만들어 저장한다. 이렇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첫 곡식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축제를 지킨다. 맥추절 축제는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에 시작하게 되는데, 10일을 한 순(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헬라어에서 다섯 번째 열흘이라 의미로 '펜테코스테 Πεντηκοστή라 했는데, 오늘날 성령의 강한 역사(役事)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해에 세 차례 하나님을 뵈어야 하는 것이 의무였다.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축제 기간이나 오순절 축제 기간 그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이었다.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다. 초실절은 그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유월절을 지난 후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데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¹⁴²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실절(初實節)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곳에 모여있었는데, 돌연 성령께서 임재하였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¹⁴² 고전15:20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축제를 맞아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머물러 있었다. 성경은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들¹⁴³이라고 했는데... 웬만한 종교적 열심이 없으면 생업을 포기하고 맥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옛 페르시아에 속하는 파르티아 사람과 역시 페르시아 북부의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옛 바벨론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지금의 트루키에에 속하는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등등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각자가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들었다.

필자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좋은 통역을 만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어는 잘하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에만 가도 한국어는 통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힌디어로,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어로, 필리핀에서는 따갈록어로 말해야 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없으니 천상 통역을 통해 전해야 한다. 그러려니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통역을 구하는 것이다. 통역은 단지 한국어를 잘하거나 혹은 그 나라 언어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야만 언어가 가지는 뉘앙스까지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에 갈 때는 좋은 통역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런데 오순절에 예루살렘, 아마도 성전 앞에 모여있던 각 나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해지는 복음을 들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으니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아람어, 페르시아어, 메대지역 방언, 헬라어, 라틴어 콥트어(이집트어)히브리어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언어였다.

¹⁴³ 행2:5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혹은 갈릴리에 살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각자의 귀에 자신들의 언어로 들렸다. 말하는 이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헬라어나 페르시아어 라탄으로 들었다. 가끔 통역을 거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답답함에 오순절에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취한 것처럼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유월절이나 오순절, 혹은 초막절이 되면 성전으로 찾아오는 순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들의 출신은 그야말로 다양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도 빌립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유대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이들은 유대인 빌립이 흑인이며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고관(高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다만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으로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가 단지 이방인이었다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을 리가 없다. 당시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고, 또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¹⁴⁴

유대인이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도 그 왕국의 고위 관료가 되었을까?

BC586년 바벨론의 네부갓네차르(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가면서 서기관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 그 땅의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다.¹⁴⁵

그러나 왕족 중 하나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 땅의 치안을 위해 주둔하던 바벨론

¹⁴⁴ 행8:26-31

¹⁴⁵ 왕하25:22

군인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던 이스마엘 일당들은 남아 있던 백성들을 포로처럼 붙잡아 이끌고 암몬으로 도망하려고 했다. 그때 가레아의 아들인 아히감의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구출했고, 이스마엘은 겨우 몸을 피해 여덟 명의 부하와 함께 암몬으로 도망쳤다.¹⁴⁶

이스마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리아와 바벨론 수비병들을 학살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지면 곧 무자비한 보복이 이어질 것이 뻔했다. 그것이 두려워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했다.¹⁴⁷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김함에 머물고 있을 때,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라마에서 풀려나 그곳에서 그들을 만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 첫째는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너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통치에 순응하여 이 땅에서 살라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전쟁도 싫고 굶주림도 싫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만약에 내 말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 칼과 기근으로 모두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컸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쳤다.

애굽은 바벨론 보다 강국이니 그리로 가면 바벨론의 보복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BC602년에 애굽은 바벨론과의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제국으로서의 힘을 잃었다. 그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단의 유대인들은 이집트 남쪽 에티오피아로 피신하여 오늘날까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간다케의 재정 장관은 에티

¹⁴⁶ 렘41:10-17

¹⁴⁷ 렘41:16-18

오피아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순절 축제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약간 결길로 빠졌었는데, 아무튼 오순절이 되면 로마제국 전역에 디아스포라를 이루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거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이때 성령이 임재한 것이었다. 구약시대까지 하나님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가끔 임하고 그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어도 많은 이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그 예언은 자신들이 익히 사용하는 언어로 듣게 되었다.

이 일이 골방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었을 것이지만,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난 일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몹시 놀라고 당황했다. 어떤 이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 조로 말하기도 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 명으로 증가했다.¹⁴⁸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을 나누는,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른 형식의 예배를 통해 교회를 형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나타났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三位一體) 교리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은 오직 한 인격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단일신론이 나타난 것이다. 단일신론(monarchianism)에서 ‘monarch’라는 말의 뜻은 군주라는 의미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군주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¹⁴⁸ 행전2:11-41

이 단일신론을 양태론적 단일신론과 역동적 단일신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태론적 단일신론’ (또는 양태론)은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형식"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기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인 그 모두가 한 사람이듯이 한 분이신 하나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인 ‘역동적 단일신론 혹은 양자론(養子論)은 하나님은 완전히 나눌 수 없는, 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완전한 삶과 일을 위해 신성(神性)을 부여받았으며, 예수가 세례를 받거나 승천할 때 "입양"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⁴⁹

그들 중에는 성령에 대해서도 삼위로서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강력한 영, 즉 활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똑같은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을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마르키즘의 영향을 받은 존 매쿼리(John Macquarrie) 등이 주장한, 성령은 단순히 연합하게 하는 능력 (Unifying Power)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분을 예언과 방언을 말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합을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며,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며,¹⁵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한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반영할 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

¹⁴⁹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ISBN 978-0-19-280290-3): Monarchianism

¹⁵⁰ 요4:24

을 믿는다는 고백이다.

교회는 이런 고백으로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을 성령강림 주일로 기념한다.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고백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백한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성령은 단순한 영적인 힘이나 초능력이 아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초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은 성도들의 성숙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성숙을 위해 우리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에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존재를 인정한다거나 그의 능력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자이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하게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다.

제10장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체인 교회가 생겨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유업으로서 하나님의 의(義)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는 그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이었다.

교회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처음에 그것은 일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유대들로만 이루어진 제자들의 개념으로도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그 외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유대인이라는 표징은 할례를 받는것 뿐 이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물론 여자는 제외) 태어난 지 팔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했다.

할례란 무엇인가?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 방식이다. 그런 외과적 수술 방식을 거치면 그것은 절대로 복원되거나 감출 수 없었으며, 유대인이라는 절대적 표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을까?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일경의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계약은 당사자 양방(兩方)이 무엇인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에게 이 땅을 제공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해 주시오
“라는 쌍방의 조건에 합의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당시에 계약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종이에 쓰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계약을 하려면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쪼개 다음 양쪽으로 나누어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이 계약이 깨어지면 계약을 깬 당사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함께 선언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완결되었다.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나서 그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브람은 짐승을 잡는다. 그러나 그 계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이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그때 깊이 잠들어 있었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혼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며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성경에서 계약을 베리트^{tyriB}라고 하는 것에 반해 하나님의 언약을 카리트^{tr'K}라고 한다. 여기서 카리트란 자르다, 혹은 쪼개다 라는 뜻이다.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언약」이라는 말을 <카리트 베라트>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약속의 짐승을 쪼개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일종의 계약이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후손과 땅이라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다는 표시로 요구하는 것이, 몸 일부를 잘라 약속을 몸에 지니라는 것이었다. ¹⁵¹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할례가 가지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죄의 대가인 죽음과 관련이 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

¹⁵¹ 창17:11-17

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이래 그의 후손들은 반역의 죄를 지고 태어난다. 반역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다른 짐승의 희생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인간은 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필자의 전작인 <통으로 읽는 복음>에서는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며 율법이라고 설명했다.

반역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자신의 목을 잘라서 들고 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반역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목을 자르는 대신 희생제물의 죽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갔다. 그러나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겨우 나가는 방식으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자신이 이미 죽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표징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¹⁵² 그의 아내인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자 비로소 그가 죽음에서 벗어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자라났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함께 머무르고 함께 싸워서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반역의 죄악을 지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으니, 할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과 언약에 따라서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와 그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¹⁵² 출4:24-26

했다.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던 그 밤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의 집
에 표시를했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표시였다. 왜 피를 발랐을까? 이 집은 이미 죽음으로 반역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표시였고,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어야만 했다. 이방인들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돈으로 산 종이나, 하나님의 백
성이 되고자 자원하는 타국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애굽을 떠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백성들은 모두 할례 산에서 할례를 받았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
할 것이고, 언약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직접 이 전쟁을
지휘할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¹⁵³여리고 전쟁을 비롯한 회복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
다. 그러니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적인 표징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승
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뇌리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그것은 너무나 명징한 사건이어서 그때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이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청중에 불과하거나 혹
은 비난꾼에 불과했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설교했다.¹⁵⁴

그리고 그날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나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이방인지만 유대교

¹⁵³ 수5:7-15

¹⁵⁴ 행2:38

에 입교한 사람들을 개종자(改宗者, proselytes)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장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해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에 이끌려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둔하는 로마 군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초대에 응하여 그의 집을 방문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¹⁵⁵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회당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¹⁵⁶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분명 이방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성령을 받았다는 분명한 징표였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임이 분명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하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예루살렘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여 이방인들도 할례받을 필요 없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¹⁵⁷

그때부터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며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¹⁵⁸ 그가 한 반도의 가아(伽耶)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다.

¹⁵⁵ 행10:2

¹⁵⁶ 김병국. 중간사 이야기. 도서출판 대서 P16

¹⁵⁷ 행11:13-18

¹⁵⁸ 이덕주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흥성사, p.145-147.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각기 다른 종교로 변질되어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세워졌고,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신앙고백 중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ejkkhhsiva)이다. 에클레시아는 에크(ejk...로부터)와 칼레오(kalevw, call)에서 유래되었으며, 따라서 이 단어는 '불러낸 자들의 전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도 아니며 건물도 아니다. 에클레시아가 의미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전체 모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예배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의 일원으로서의 고백이며, 이 세상에는 가톨릭이나 정교회, 혹은 개신교 등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의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¹⁵⁹ 세워져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앞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한 계시록에 따르면 어린양의 신부(新婦)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어린양의 신부는 누구일까?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 들을 만드실 때, 암컷과 수컷 즉 암수(暗數) 한 쌍을 함께 만드셨다. 우리가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바다짐승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복은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암수의 교미이다. 어떤 생명체라도 반드시 암컷과 수컷의 교미를 통해서만 번식할 수 있다.

¹⁵⁹ 마16:18

하나님은 창조 5일째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그런데 처음엔 아담 혼자만 창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¹⁶⁰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좋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치 않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반영하는 존재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이며 아담에게 주어진 존재 목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담 혼자서만, 물질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담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런데 아담이 이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짝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배필이 없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셔서 아담이 그것들을 보게 하셨다. 성경은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고 하셨다. 아담은 그것들을 살펴보고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는 아담의 짝이 될 수 있는 짐승이나 새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짝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음 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KJV는 and라는 접속사로 다음 구절을 시작하고 NIV는so라는 접속사를 쓴다. 모두 "그런 이유로~"를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접속사 "바 **w**"로 21절을 시작하는데, 이 <바>라는 접속사는 「그래서」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들과 짐승들 사이에서는 그를 도와서 생육하고 번성할 만한 배필을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담을 잠

¹⁶⁰ 창2:18

들게 하셨다.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쓰러뜨렸다”라는 단어로 시작하신다. 물론 그 단어를 이끄는 것은 “그래서”라는 접속사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을 다 살펴보았지만, 함께 생육하고 번성할 배필(配偶)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쓰러뜨리고 잠들게 하셨다. 여기서 “잠들다”로 번역된 단어는 한국어나 영어 모두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¹⁶¹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쓰인다. 첫 번째 잠들게 하셨다는 테르다마[**hm:Der**]T 를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면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깊은 잠이 들었다는 뜻이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렘(REM)수면에 빠졌다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다”고 할 때는 야센 @**vey**을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야센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¹⁶² 아담의 배필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쓰러뜨리시고 잠들게 즉,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뼈로 이브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 다른 생명체들은 종을 따라 암컷과 수컷을 함께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인 아담을 만들고 보니... 앗차! 남자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은 것일까?

그래서 흙으로 짐승과 조류들을 만들어 그중에서 아담의 배필을 고르게 하셨는데... 그중에는 아담과 짝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비뼈를 뽑아 이브를 만들어 주신 것일까?

그럴 리는 없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¹⁶¹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창2:21, 개역개정)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while he was sleeping (창2:21NIV)

¹⁶² 시편13:3, 단12:2

여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게 꼭 필요하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가 희생되심으로 아담족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와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의(義)를 덧입어야 한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¹⁶³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설명은 어떤 종교 개념에도 없는 실로 중요한 내용이다. 타락 이전에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써야만 했다. 여기서 사용한 “관을 쓴다”는 의미는 “둘러싸다”라는 뜻이다. 시편 8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셨다.¹⁶⁴

이렇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더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벗겨지고, 그 벗겨진 상태는 인간의 반역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반역의 죄가 용서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거룩”이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인 우주와 물질 우주에서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주이시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 피조물과

¹⁶³ 롬4:25

¹⁶⁴ 시편 8:5에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싸우다”로 번역된 rf[는 둘러싸다의 의미를 가진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옷, 의(義)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것은 죄가 용서된 지금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장가보내면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왕은 네거리에 나가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초청했고, 잔치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음에 일어났다. 주인이 들어와 보니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소”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 때 주인은 이 사람,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고 했다.

이 주인은 왜 이리 변덕을 부린 것일까? 아무나 잔치자리에 오라고 초대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그깟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리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일까?

또 하나, 지금 그 자리에 와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잔치에 온 사람들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졸지에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예복을 준비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예복을 입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예복은 문 앞에서 나누어주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초대 되어 온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예복은 속옷부터 입는 것이 아니라, 위에 덧입는 것옷이다. 그리니 주최하는 쪽에서 나누어 주는 예복을 위에 덧입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예복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정도면 이 잔치 자리에 어울릴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마 부자들이거나 신분이 높아서 평소에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잔치 자리에는 입구에서 나누어 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그 예복은 의(義)의 옷이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

어 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 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¹⁶⁵으로 인간의 반역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따라서 아담족은 자신이 지은 반역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멸절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 새로운 생명은 의로운 생명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요약되는 복음 사건을 신뢰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즉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

교회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덧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졌고, 성령이 강림하여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린다. 아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신부인 이브가 만들어졌듯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 과정을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아담과 이브의 창조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아담이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때 아담은 그녀가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뼈 중에서 뼈,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은 “나와 똑같다”는 히브리적

¹⁶⁵ 고전15:45

관용구로서, 이브와 아담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¹⁶⁶

이것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 우주에서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를 함께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통과 죄의 용서, 그리고 몸의 부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성도(聖徒)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心靈)을 창조하시고¹⁶⁷ 그 영(靈)안에 들어와 거하셨다. 따라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의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의 영은 기능적으로 죽었다.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므로 존재적으로는 살아 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믿음으로 반역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죽었던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심령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이 심령 안에 설령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게 된다.

하나님은 영(靈)이시다.¹⁶⁸ 그러므로 물질 우주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

¹⁶⁶ 창2:24

¹⁶⁷ 속12:1

¹⁶⁸ 요4:24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사들과 같은 영들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 안에 영을 불어 넣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통해서 이 영의 기능을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영이 되살아난 사람들은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교통은 일차적으로 연합하여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으며,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예배를 통해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기록에서 이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¹⁶⁹ 이것을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음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우주와 물질 우주가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전부이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거나 가장 뛰어난 신이 아니고, 누구의 조력도 없이, 말씀으로 영적인 우주와 물질 우주를 창조하신 오직 한분의 창조자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분은 존재 방식과 존재 목적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반역자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의 잉태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생명을 부여하셔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

¹⁶⁹ 행2:42-47

하나님께서서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 같이 확인하자

그리스도인은 단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나, 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른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의 유업(遺業)을 상속받았다. 그러므로 상속자로서 이 귀한 유업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우리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철부지가 아니라, 근면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다.

참고도서 목록

Catholic Encyclopedia on Purgatory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Elgin S. Moyer (1951). 《Great leaders of the Christian church》 [인물 중심의 교회사]. 번역 곽안전; 심재원. Moody Publishers.

“Milky Way a Swifter Spinner, More Massive, New Measurements Show”

Bullock 2007

Kugler & Hartin 2009

Seow 2013

Kugel 2012

Sarfati, J. The Universe is Finely Tuned for Life.

Creation Ministries International. Posted on creation.com 1997,

Paul, G.S. (2019). “Determining the largest known land animal: A critical comparison

of differing methods for restoring the volume and mass of extinct animals” (PDF).
 《Annals of the Carnegie Museum》
 World Book of Encyclopedia 1973
 Dinosaurs in Literature, Art & History of Europe
 St. Davids Dragon—Fantasy or Reality? by Brian Thomas, Ph.D.
 성경<개역 개정,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
 리그베다
 천문학용어집. 한국천문학회 편
 정교하게 설계된 지구 누가 만들었을까?. 권혁상. 창조과학 학회
 구분식. 통으로 읽는 복음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호메로스, 《일리아스》 5.
 남성현, 《콘스탄티누스 가문의 기독교적 입법정책》, 한국학술정보, 2013,
 조덕영 칼럼 ‘양태론’이 이단인 이유는 무엇인가, 크리스천투데이, : 2012.09.1.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신학논쟁들 ‘단일신론과 양태론’크리스천투데이, 2006. 07.
 신구약 중간사. 레이몬드 실버그 지음. 김의원 역
 김성환. 《교실 밖 세계사 여행:마호메트는 상인이자 정치가였다.》
 리처드 호슬리. 김준우 옮김, 편집. 《예수와 제국》
 동양사상 > 동양의 사상 > 일본의 사상 > 불교사상 > 진언종,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파드마 삼바바. 티벳 사자의 서.
 이용범, 꽃을 드니 미소 짓네, 바움, 2007,
 김병국. 중간사 이야기. 도서출판 대서
 이덕주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흥성사,

